



시론

사슴나무골이야기(17): 한국 교회의 강점과 약점(2)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한국 교회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약 20여년간 20세기 들어 최대의 폭발적인 성장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대형 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중소형 교회는 중소형 교회대로 교인 수의 감소 및 정체 현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십년간은 일부 교단과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대처로 인해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경고와 싸움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조선 땅에 전래된 이래 기독교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맞습니다. 국민들을 깨우쳐 개화사상과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상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일본 군국주의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면서 대신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된 삼일운동 지도자 33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한 일에 가까이 앞장을 섰으로써 불신자들로부터도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6.25 동란으로 온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짓밟혔을 때에도 고문과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마다않으며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져갔습니다.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과 기독교 봉사단체들은 전쟁의 상처로 고통가운데 있던 한국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니 믿는 자들이 더해만 갔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 교회, 선교사,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용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호의적이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희생정신, 사랑, 친절, 봉사, 정직, 검소, 나눔과 베품과 같은 아름다운 덕목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이 성령의 열매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지만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부흥의 역사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당연한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갔습니다. 교회들이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도 화려한 교회당을 짓는 일보다 땅 끝까지 복음전하는 선교 사역과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 사역에 힘썼습니다. 참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선교사들로부터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다보니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 병명이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소홀히 한 이유들을 점검해 보면 어떻게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했거나, 운동을 너무 오래 하지 않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기적인 치유책은 바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면서 다시금 건강을 되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치유의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을 한 번 잃어버리고 어렵게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옛날의 나쁜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지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전에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지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나 차고 넘치는 교인들과 넉넉한 교회 재정이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기준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선지자적인 거룩성을 회복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할 양들을 향한 선한 목자의 양심을 회복할 때, 교회의 성결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교회 본연의 존재목적과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언16:18).

시사

인간관계 강화에 도움 YES or NO?

WSJ, SNS 사용 증가에 따른 찬반 입장 소개

모바일 기술이 확산되면서 더 많은 이들이 더 쉽게 소셜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가끔 페이스북을 사용한다고 답했으며 페이스북 사용자의 45%가 하루에 여러 번 페이스북을 확인한다고 답했다. 이는 마치 사람들의 사회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몇몇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피상적인 인맥을 유지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현실 세계에서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채팅은 너무 많고 진짜 대화는 너무 적다는 것. 또 다른 이들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가

직접 대면하는 사교활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사교활동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더 가까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도밍게즈 힐즈의 래리 로슨 심리학교수는 기술이 우리를 현실의 인간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말한다. 럿거스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정보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공공 정책 강의를 맡고 있는 키스 N. 햄튼은 기술이 현실의 관계들과 사회적 삶의 나머지 부분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Is Technology Making People Less Sociable? Debate centers on the effects of mobile technology and social media, online and off).

중요한 인간적 상호작용을 제공하는가?

심리학자들은 사회적 자본, 즉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두 가지로 정의한다. ‘유대(bonding),’ 그리고 좀더 표면적인 ‘연결(bridging)’이다. 연구에 따르면 가상세계의 친구들은 대부분 연결형 사회자본을 제공하고 현실세계의 친구들은 유대형 사회자본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연구에서 가상세계에서 공감하는 것이 가능한 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공감에 비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지받는다는 느낌은 6분의 1 정도도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포옹 한 번이 이모티콘 하나보다 6배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기술사용이 우리의 사교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을 만날 때는 폰을 치워놓고 사람들에게 연락할 때에는 짧은 메시지 몇 개를 보내는 대신 전화를 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휴대폰 확인은 줄이고 직접 대면은 늘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가상세계에서의 연결은 현실세계의 유대와 다르다

신기술 반대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내가 나의 삶과 40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기술을 받아들이려왔다는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다. 나는 부모들에게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에 대해 말하고 교육자들에게는 교실에서 기술의 효과를 강화하라고 말한다.

나는 연구심리학자로서 30년 간 미국과 24개국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 5만 명을 대상으로 기술의 영향



반: 불안가중, 현실세계 교류 깊은 의사소통 시간 제한

찬: 지속적 접촉과 광범위한 인식은 다양한 이익 제공

을 연구했다.

그 사이, 게임의 판도를 바꿔 놓은 3가지가 우리 세계에 등장했다. 바로 휴대용 컴퓨터, 소셜커뮤니케이션, 스마트폰이다. 이 3가지 때문에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사람들과 더 연결될 수 있지만 현실세계의 사람들과는 의사소통이 줄고 있다.

우리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는 분명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가상세계의 친구 중 상당수는 현실세계의 친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상세계에 쏟는 시간과 노력은 현실세계에서 교류하고 더 깊이 의사소통하는 시간을 제한한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면 경고, 알림, 진동, 호출음이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뭔가가 중요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고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한다. 우리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하면서 자신이 사교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자 셰리 터클이 적절하게 표현했듯 우리는 진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맛만 짚금짚금 보고 있는 셈이다.

더 나쁜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알림음이 진동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나와 동료 연구자들은 심대하고 성인 1,100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35세 미만의 스마트폰 사용자 대다수가 알림이 오지 않아도 하루에 여러 번 전자기기를 확인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불안이 이 행동을 일으킨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마치 울린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데서 알 수 있듯 끊임없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하는 욕구는 가상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하는 불안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한 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폰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이들의 불안 수치를 관찰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10분만 지나도 불안 수치가 증가했으며 1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불안도가 계속 올라갔다. 중간 정도의 사용자들은 약간의 불안도를 보였고 라이트 유저들은 불안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가상세계를 끊임없이 확인한다면 현실세계의 인간관계를 위한 시간은 별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연결과 의사소통의 차이이다. 우리는 수백 명의 페이스북 친구를 갖고 있을지 모른다. 다른 방법으로는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의 정서적 건강에 매우

(로슨 박사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도밍게즈 힐즈 심리학교수다)

인간관계는 대체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고 있다

떠들썩한 주장에 휩쓸리지 마라. 휴대폰, 인터넷, 페이스북 같은 신기술은 우리의 사회성을 낮추지 않는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8(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29th Anniversary

1986-2015. 개교 29주년

Midwest University

기념특강 및 학위 수여식

June 8-12, 2015



설립자, 총장
Dr. James Song

학사, 석사, 박사학위과정

경영학, 음악, 상담학, 교육학, 신학, 영어교육, 리더십

Take the Challenge

The intelligent choice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온라인 피상적 인맥유지에 시간투자 너무 많다” VS “사교활동 지평 넓혀 주변 세계와 연결 공고히”

〈2면에서 계속〉

몇 가지가 바뀐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닐지도 모른다. “이 얼마나 이상한 관습인가. 남자가 아침 식탁에 앉아 아내, 아이들과 대화하는 대신 전 세계 가십거리가 적힌 스크린 같은 것을 얼굴 앞에 들고 있다.” 이 문장은 오늘날에도 공감할 일으킨다. 1909년에 쓰였는 데도 말이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기 사회학자들 중 한 명인 찰스 쿨리가 아침 신문 배달이 미국 가정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관찰한 것이다. 신문 배달원이 줄고 있으니 참 다행이다.

우리가 100년 전보다 더 통신에 중독돼 있고 그 결과 관계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내 학생들, 동료들과 진행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및 휴대폰 사용자, 그 중에서도 특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긴밀한 관계를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맺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뀐 것은 통신 기술이 우리 관계의 상당수를 더 지속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대부분 긍정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옮기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면서 끊어졌던 사회적 관계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계속 이어진다. 오늘날 고등학교 친구들은 페이스북 북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 직업상 알게 된 지인들, 먼 친척, 삶의 각 단계에서 만난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가까운 관계의 경우, 기술이 직접 상호작용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충한다.

온라인에서 주고받는 수많은 메시지를 사소하다고 일축하기는

쉽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의 꾸준한 접촉으로부터 얻는 작은 정보들이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의 활동, 관심사, 의견에 대한 큰 정보로 합쳐진다. 소셜미디어가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정보와 함께 공동의 인식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보 과부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메일, 휴대폰,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마저도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부 사람들, 특히 여성의 경우 온라인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

회적 공유 기회를 얻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했다.

그 모든 정보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인식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다. 현실세계의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금기시된 정치, 종교 같은 주제들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공유하는 사진, 지지하는 의견을 통해 갑자기 표면에 드러난다. 물론 이 모든 정보가 반갑거나 유익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반드시 우정이 돈독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는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문제가 될 만한 기술사용의 예를 알고 있다. 일부 남자 혹은 여자들이 아침 식탁에 앉아 배우자나 자녀들과 대화하는 대신 전 세계 가십거리가 적힌 진짜 스크린을 얼굴 앞에 들고 있는 그 이상한 관습 같은 것을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통신은 심리적 질병이 아니다. 기술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다. 기술로 인해 가능해진 지속적 접촉과 광범위한 인식이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

〈웹트 박사는 뱃거스대학과 커뮤니케이션정보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과 공공 정책 강의를 맡고 있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사와 자존심 (중)

목사, 자기관리가 생명이야

목사가 도도하게 굴고 목에 힘을 주는 것도 꼴불견이지만, 공상떨고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보기 힘들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내려놓는 날까지 단 한번도 월급이 얼마인가, 연봉이 얼마나 되는가, 몇 퍼센트나 증액되었는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 누구라도 연봉이 오르고 활동비가 증액되는 것이 싫거나 귀찮은 사람은 없다. 필자도 돈이 좋고 많으면 더 좋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자존심을 흠바닥에 깔고 싶은 마음은 없다.

흔히 목회를 하나님의 목회라고 말한다. 그 뜻은 내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목회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나 목회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 성패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와 그 뜻을 얼마나 헤아리고 따르느냐로 판가름 난다. 목회 대상이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네들 눈치를 살핀다든지, 그들의 의사결정을 하나님의 뜻 위에 둔다든지, 그네들의 행보에 맞춰 나가려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목회가 아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양보해야 할 것과 양보해선 안될 것들이 있다. 필자의 경우 강단과 인사는 양보한 일이 없다. 말씀선포는 목사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며 사역이기 때문에 결정을 위임하거나 합부로 개방한 일이 없다. 부흥회 강사, 헌신예배 강사, 세미나 강사 선정은 담임목사의 책임과 결정으로 정했다. ‘어느 강사가 좋더라’든지 ‘누구를 모십시다’라는 제안은 참고로 했을 뿐 그 말 따라 강사를 정하지 않았다. 아무나 강단에 세울 수 없기 때문이고 그래선 안 되기 때문이다.

강단은 교인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육 훈련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런 강단을 타의에 의해 내맡긴다든지 문을 개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단은 담임목사가 책임져야 하고 책임 하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인사 문제도 필자가 책임졌다. 35년간 부목사나 전도사를 청빙하는데 신문에 광고한 일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이나 부목사의 친구들을 초빙하도록 했다.

작금 한국교회는 회사나 기업이 직원을 선발하듯 신문에 광고하고 이력서를 받아 심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경우 수백 통씩 이력서가 쌓인다고 한다. 이력서나 화려한 경력, 그리고 멋진 화술로 엮어내는 설교 한 편으로 영혼을 책임질 목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무리다. 목양의 원리는 양이 목자를 선임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의 경우 부교역자 선택 방법에 때문에 교회에 부덕을 끼치거나 문제가 일어난 일이 없다. 그리고 줄타기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채용하거나 청빙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A장로와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A장로를 내세워 청탁을 하거나 추천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유는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도와 사역할 사람이지만 A장로와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어서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사람이 A장로 라인을 통해 부교역자가 된다면 A장로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담임목사와의 긍정적 관계에 골이 파일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하면 재정문제는 해당 책임자들과 부서장에 위임했다. 믿고 맡겼고, 투세 없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조정하고 관리했다. 하나님 은혜로 충신 교회 목회 35년 동안 재정사고가 없었다. 물론 목사는 교회재정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돈이란 멀리해도 안 되고 가까이 해도 안 된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관리는 필요하지만 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완주자의 노래-40년 목회이야기” 중 발췌〉

해외한인장로회 40회 정기총회

〈1면에서 계속〉

동북노회는 현 임원이 부회장 후보자가 되면 직무수행을 현직 프리미엄으로 하여 부작용이 생기기므로 △선거 조례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회장 선거에 임후보할 수 없다”를 “총회 현 임원은 부회장에 임후보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회장에 임후보할 수 없다”로 변경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나 선관위의 비공개 자료 제공 등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박탈 △특정후보의 당락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개입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등을 현의했다.

뉴질랜드 노회는 남태평양 바누아투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헌금 요청을, 서북노회는 총회의 총대권 제한으로 산하 교회들의 노회탈퇴 등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으므로, 총회가 노회의 상체를 치유할 총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청원했다.

임원회는 타 교단에 관여하는 목사들과 이중적을 소유한 사람은 총회장 및 부총회장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조례 개정을 청원했다.

또 뉴욕의 엘림교회 교회당 매각후 재산처리에 대한 조치를 청원했다. 임원회는 이에 대해 교단적으로 지교회 폐쇄와 교회당 매각 후 재산처리에 대해 총회 차원의 제재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청원했다.

둘째 날은 본격적인 회무처리와 사모회, 장로연합회, 여성교회연합회 등의 기관 총회와 행사가 이어졌다.

사모회(회장 김유경 사모, 뉴욕 에일장로교회)는 사모로서의 어려움과 보람된 일, 사모의 체력관리 등을 공유하는 포럼을 열었다. 패밀리는 박형림(윤도근 목사/볼리비아 선교사), 장혜순(한세원 목사/영락교회원로), 박의숙(박성규 목사), 윤경숙(이항호 목사-알바니아), 유영숙(유재도 목사/땅끝교회) 등이 나섰다.

총회산하 단체들은 각각 신임 회장을 세웠다. 장로연합회는 박순태 장로, 여성교회연합회는 문



KPCA 새임원단

명숙 권사.

오전 경건회에서는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터키 난민선교를 위해’ 제목으로, 수요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부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일’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마지막 날 총회장 김종훈 목사는 직전총회장 노진걸 목사와 부총회장 박순태 장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수도노회장 이승태 목사가 인도한 아침 경건회는 뉴질랜드 노회장 이태한 목사의 기도, 김신애 사모의 클라리넷 독주에 이어 페루선교사 황윤일 목사가 ‘페루선

교현장보고’의 특강을 했다.

폐회예배에서는 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3일간의 총회일정을 마무리했다.

해외한인장로회 40회 총회에는 총대 311명(목사 193명, 장로 118명) 등 5백여 명이 참가했다.

해외한인장로회는 현재 노회 21개, 교회 459개, 목사 952명, 장로 626명, 총교인 84,158명 등이 속해 있다. 이번 총회는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소속된 뉴욕노회에서 박명준 목사를 준비 위원장으로 준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목회 초년 (2)

시내 중심지에서 벗어나 변두리에 교회를 개척하여 첫 겨울을 맞게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교회 가족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터이라 김장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두가 나지 않았습니 다. 뒤늦게나마 김장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읍으로 나갔습니 다. 이미 김장철은 지나 온전한 배추를 구할 수가 없

고 쟁쟁 언 배추뿐이었습니 다. 그 해 따라 고추를 금주라고 할 정도로 고춧가루가 비싸서 삼등품(고추 씨와 고추 꼭지를 섞어서 만든)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았습니 다. 보관할 장독도 없어서 커다란 고무 통을 땅에 묻고 김치를 담아놓았습니 다. 한 달 쯤 지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 다. 김치 몇 포기 를 꺼내어 먹으려니 배추는 배추대로 양념은

양념대로 곁도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김치가 고작이니 커다란 솥에 밥을 하여 김치 윗부분을 자른 후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자 음식은 김치의 맛은 진미였습니다. 별난 김장 김치를 교우들과 나누었던 그 시절 그 밥상을 떠올려 봅니다.

다락방으로는 더 이상 교우들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궁리 끝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을 통해 비닐하우스를 앞마당에 설치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강단을 꾸미고 강대상과 의자, 풍금도 놓아 제법 예배당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비닐하우스 안은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난로를 설치하자 천장에 이슬이 맺혀 예배 시간 동안 교우들 머리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학생 둘이서 이인 일조가 되어 교대로 대 걸레를 들고 한 학생은 앞에서 뒤로 다른 한 학생은 뒤에서 앞으로 닦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배당 지어요!” 난감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돈이 없어서...” 그러자 아이들은 합창을 하듯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에 말에 할 말이 잃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내에게 해준 폐물이며, 랜찰은 살림살이, 아이 돌 반지 등 돈 될 만한 것은 모두 팔았습니다. 교우들도 한 가지로 어려운 살림이지만 마음과 힘을 다하여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하며 벽돌 한 장 값 모금을 하였습니다.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집 어머니의 환갑 잔치였습니다. 모금의 경위를 설명하자 교회주소를 묻더니 알았으니 돌아가 계시면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시며 정중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몇 날 지나 검정 세단을 타고

점잖은 신사 한 분이 교회를 방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잔치 축의금으로 들어온 전액을 교회 건축에 써달라고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 건축비용을 마련코자 낡은 미니밴(일명 봉고차)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낮에는 일꾼들과 함께 일을 하고 새벽과 저녁에는 기도 를 했습니다. 피고한 몸을 이끌고 한들을 잡았습니다. 피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졸린 눈으로 앞을 보니 5km이라는 휴게소 사인보드가 보였습니다. 휴게소에서 눈을 붙이고 가리라는 순간 ‘꽝’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보니 옆은 수십 길 낭떠러지인데 저의 차를 커다란 트럭이 받치고 있었습니다. 차를 서서히 이동시켜 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는 부산에서 서울로 빵(콘티방)을 배달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앞서 가는 미니밴이 흔들거리더니 낭떠러지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하여 옆을 살짝 들이받아 차를

멈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중 서울에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근무하는 ‘콘티 빵’ 회사는 기독교 회사이어서 믿을 있는 분들이 모여 신우회를 조직하고 매주 수요일에 직장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몇 주후 수요일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인도하였습니다. 예배 후 신우회 회장님께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헌금이라 하시며 건축금으로 써달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 우리 모두는 순수했고 해맑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도우며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맛없는 김치를 함께 나누던 교우들, 축의금을 아낌없이 주셨던 이름조차 모르는 권사님, 위험가운데서 구해주시고 건축에 도움을 주셨던 콘티 집사님의 배후신 사랑과 은혜에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푸 / 른 / 초 / 장

강기봉 목사

(뉴욕백민교회)



규모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대형교단인 PCUSA가 동성결혼을 총회 80%의 찬성으로 통과시켰 습니다. 미 연방대법원도 최종 심의에 착수했는데, 대법관 9명 중 4명은 찬성, 4명은 반대편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질문명의 발달에 힘입어 사람사람이 자기 소리를 내는데 걸림이 없고, 인터넷이 여과 없이 모든 말들을 쏟아내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보이고, 들리는 사람들의 소리에 압도되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결혼은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너무 쉽게 무너뜨립니다. 동성결혼 뿐 아니라 현대 세계의 많은 분야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문제 해결 접근은 말씀으로 또 한 번 돌아가는 첫박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듣기에 너무 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가까이애, 그리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읽고 듣고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이 너무 높은 곳에 있고 말씀이 너무 깊은 곳, 너무 먼 곳에 있어 미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따라 살기가 힘들다고 투정

과 핑계하기를 잘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다. 힘들다’는 말들을 합니다. 진실된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 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백에서 은근히 하나님이나 그 말씀에 탓을 돌리는 것

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도사리고 있는 원인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디어진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인생의 원리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타조와 개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타조가 보니 개미들이 쉬지 않고 걷는데 한 시간을 걸어도 자기 한 걸음 거리도 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조는 시속 70Km 썩을 달리는 데 비하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을 내려다보며 ‘애, 개미들이 너희들 그렇게 걷는 것을 보

니 참 안 되었구나’ 하며 동정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개미들이 항의하듯이 ‘그래도 우리는 저 넓은 바다를 건너고 저 높은 하늘을 날아 미국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 다. 타조가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하고 물으니, ‘배를 타는 사람,

의 평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장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전합니다.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일5:3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두세 살부터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다섯 살을 넘으면 모세오경을 읽고 그

며,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시는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양떼를 치면서, 밤에 사자가 꿈과 같은 야생 짐승이 양떼를 공격해 오면, 두려워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 때 다윗을 그토록 용맹스럽게 했던 힘이 바로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육축을 어찌 야생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할 수 있느냐는 확신이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은 이렇게 밤에 양 무리를 지켜야만 하는 이름 없는 목동에게도 힘과 지혜를 주도록 쉬었습니다. 말씀은 순전한

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과 단순함에 감동을 받으며 말씀이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누가 특별히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생활목표를 ‘순결하게, 단순하게!’로 설정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힘쓰더니, 교회가 생기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아이 같은 순전함으로 받을 때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구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2. 하나님 말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15-20).

하나님의 말씀은 오를 수 없는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요, 건널 수 없는 바다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또 따르지도 않기로 작심했다는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또 따라 살 수 있어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모압 팽지 설교, 곧 모세의 일생을 매듭짓는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에서 모세는, 다시 한 번 말씀에의 순종을 촉구합니다. 물론 말씀에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선택권은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에 따른 형벌과 저주가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실히 합니다. 요 14:6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중간 길도 없고 제3의 방법도 없습니다. (8면으로 계속)

마음에 달렸습니다

(신명기 30:11-20)

비행기를 타는 사람 짐 가방에 들어가면 간단하지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말씀 따라 살기 쉽지 않지만, 주님 은혜를 의지하면 쉽습니 다.

히 11:6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11-14),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시 같은 말씀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말씀

뜻을 마음 판에 새기도록 힘썼 습니 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각기 있는 그 모습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두 살 반을 넘기고 있는 손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길가의 꽃을 보면 꺾으려 안달을 부립니다.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이 꽃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과 함께 보라고 지으셨는데 네가 꺾으면 되겠어?’ 했습니다. 이 말에 아이가 내민 손을 거두었습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시19:7-8을 보십시오. 여호와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

으로 듣고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믿는 연인 사이의 말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미국 중부에 45년 된 교회 교인들 평균 연령이 65세였습니다. 거의 모든 교인들이 믿음 생활이 어렵다, 하나님 말씀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을 하며, 교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목사님이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인들의 반발과 불평이 많았지만 밀고 나갔습니 다. 처음 몇 주간은 그저 시끄럽고 여수선하기만 한 것 같았는데, 한 달이 못되어 어른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기가 돌기 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부개혁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6회 졸업 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문영운, 방정훈, 최용녀, 홍진화
- 여교역학과 (Diploma)
이종순, 최현정, 한영숙
- 신학부 (B.Th)
김지영, 유인숙, 이애령, 조군식

일 시: 주후 2015년 6월 8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처: (718)463-7163, (718)886-4040

미주한인예수교
장 로 회

동부개혁신학교

학 장 장 영 준 박사
이사장 이 용 결 박사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선한 싸움에 전신갑주 취하고 성령의 검, 믿음의 깃발 들자

왜 미연방대법원 동성결혼 결정에 관심을 두고 기도해야 하나? 만일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동성결혼이 “헌법적Constitutional”인 것이라고 6월에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가장 가깝게는 지금의 기독교인들과 성경적 결혼을 믿는 모든 교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이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명적 위험과 대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혼돈과 아픔은 결국 사

Department, Utah), Chaplain Wes Modder(Naval Nuclear Power Training Command, South Carolina), Donald & Evelyn Knapp(The Hitching Post Wedding Chapel, Idaho), Elaine & Jonathan Huguenin(Elane Photography, New Mexico), Patricia Jannuzzi(Immaculata Catholic School teacher, New Jersey), Craig James(Fox Sports, Texas), Kelvin Cochran(Atlanta Fire Rescue Department, Geor-

키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는 것을 보고 몹시 불의의 분노를 느낀 다투이, 평소에는 짐승에게 던져 잡던 화살처럼 사용하는 돌맹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 십대의 어린 다투이 몰매돌을 던지기 전에 불렛셋 거인에게 크게 외치면서 몰매돌을 던졌다는 것인데 몰매돌을 던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다투이 선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과 선포는 바로, “너는

세계의 결혼의 역사와 정의까지도 바꿀 수 있을지 모르는 엄청난 논의들이 매일 판사들 사이에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기도해야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기도 안 한 죄, 무관심한 죄의 대가를 우리 자녀들이 치르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진심으로 간절히, 매일 매일 이 미연방대법원 판사들과 모든 상황들을 두고 기도해야합니다.

6월말까지 미연방 대법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 결정
“몰매돌” 기도운동에 동참 매일 기도함으로 막아야

회와 국가적 차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과 다음세대들에게 끼쳐질 치명적 결과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동성결혼이 아직 합법화 되기도 전에 성경적 결혼을 고수하고자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이 최근에 이미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난후에 얼마나 더 크리스천들과 성경적 결혼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차별과 핍박이 있을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Chris와 Nang Mai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UrLoved라는 사진 사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두 남자의 동성결혼식 사진 부탁을 거부한 이유로 그들의 사업은 폐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성경적 결혼을 지키므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안에서 역차별과 법적으로 억울하게 핍박을 받은, 또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몇 분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David& LilyStockton (Just-Cookies, Indiana), Pam Regentin (Fleur Cakes, Oregon), Jack Phillips (Masterpiece Cakes, Colorado), Phil Robertson (“Duck Dynasty,” Louisiana), Crystal & Kevin O’Connor(Memories Pizza, Indiana), Senior Master Sergeant Phillip Monk(Lackland Air Force Base, Texas), Eric Moutsos(Salt Lake City Policy

gia), Brendan Eich(Mozilla, California), David & Jason Benham(HGTV, North Carolina), Aaron & Melissa Klein(Sweet Cakes by Melissa, Oregon), Barronelle Stutzman(Arlene’s Flowers, Washington). 그리고 리스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만일 헌법적인 것으로 판결된다면...

우리는 비굴하게 성경적 결혼을 부인을 해야 하든지 아니면 우리와 우리 교회도 위의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더 심한 역차별과 정신적, 육신적, 심리적 핍박을 법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5월 첫 주부터 몰매돌 기도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합시다!!

5월 첫 주부터 6월 12일까지 40일 기도운동을 하시는 팀과, 5월 둘째 주부터 6월말까지 또는 법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는 팀이 미연방대법원 법정 결과를 두고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운동은 미국 전역에 있는 한 인교회들이 함께 참여하며, 넓혀가고 있습니다.

“몰매돌”의 의미는? 몰매돌은 불렛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던진 것이지요!

다윗의 그 파위풀한 선포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의 믿음의 선포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짐승만 넘어뜨린 그 작은 몰매돌이, 다윗이 그렇게 선포하고 함차게 던지자, 긴 거리와는 상관없이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단 한 방에 찌고, 그 자리에서 골리앗은 한마디도 못한 채 죽사를 하고 맙니다.

따라서 몰매돌 기도운동이란 바로 적의 허를 찌르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무엇보다 적군의 모든 악한 영향력들이 다 압제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 중순에서 6월 말 사이에는 미국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허락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가 계속 미연방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 거의 매일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마지막 공청회에서 들은 논쟁들과, 양쪽 찬반대 팀에서 제출한 거의 130여개 정도의 케이스들을 매일 읽고 토론하면서, 미국의 헌법에 결혼의 정의를 바꿀 수 있는 정당성을 논의하며, 미국의 역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온

이제는 선택할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큰문, wide gate” 앞에서 서성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받아주는 것을 하던 당연히 쉽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편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딪히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세상속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암흑상태이며, 완전히 길을 잃은 혼돈상태입니다. 그 혼돈상태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기에,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 해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전역에 다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그리고 이제는 내 자녀, 다음세대를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6월 말까지 미연방 대법원에서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며, “몰매돌 기도운동”에 동참하시면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남가주-김정환 선교사(Son Ministry),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북가주-김태오 목사, 새라김 사모. 또는 Facebook에서 Tvnext.org에 가면 매일 “몰매돌 기도제목”이 올라온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요한계시록에는 주님 재림 전에 무서운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전쟁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주의 재림 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언제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에서 김옥자 권사

A: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화, 화, 화 하면서 3가지 화가 임할 것을 예고했는데 첫 번째 화가 계9:1-11의 무저갱에서 나온 풀무 연기속의 황충의 해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악사상으로 인해 정신적 도덕적 영적 타락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화가 계9:13-21의 유브라데강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네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서서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의 바람은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땅사방에 부는 바람 즉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144000명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144,000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

"그" 날씨는 숨기셨으나 확실히 존재하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난시대는 짧아

을 다 구원하도록 성령님이 인치시기까지는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브라데강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을 정지시킵니다. 전쟁을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나팔가진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1/3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유브라데강 전쟁은 그년 월 일시는 그 날짜를 숨기셨습니다. 그년 월 일시는 정관사가 앞에 나오는데 그것은 그 날짜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 그 날짜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2만만(2억)의 군대가 모여 전쟁을 하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 가능한 일입니다. 2차 대전으로 죽은 수가 2천만명 한국전쟁으로 죽은 수가 3백만명인데 전세계 인구의 1/3 즉 20억이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17절을 보면 매우 고성능의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홍갈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사도요한은 말세에 사용될 무기들을 그 당시 표현방법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방법으로 말했다면 핵무기와 대륙간 유도탄과 핵잠수함 등을 말했을 것입니다. 핵이 아니고는 사람1/3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예언서에는 환난기의 기간이 전반부(전3년반)와 후반부(후3년반) 두 기간으로 되어있다고 말합니다. 환난의 전반부는 예수님 초림부터 유브라데강 전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260일 간입니다.

후반기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극심한 환난시대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유브라데강 전쟁의 승자로 전 세계를 통일하며 패권을 잡은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일 것입니다. 요즘 IS가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를 목을 잘라 죽이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그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계13장7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기에 계시록 13장 5절에서는 42달이라고도 하고 계11:9절에는 3일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길면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한계가 있으므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짧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24:22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5년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3일 (합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진목사)
18일 예복교회(윤성호목사)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일 ~ 25일 갈멜산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3월

1일 ~ 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총신대학교 신명수련회
9일 ~ 11일 (합동)대평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일 ~ 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4월

6일 ~ 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일 ~ 16일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갈빈대학교, 대학원 재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5월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7일 ~ 21일 소망교회(이정현목사)
18일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일 ~ 27일 갈베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월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일 ~ 17일 온양김리교회(노광현목사)
21일 예우림교회(유병희목사)
22일 ~ 24일 (합동) 남수원노회 교사강습회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7월

1일 ~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육광석목사)

8월

3일 ~ 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일 ~ 12일 나사렛성결단 연합성회
17일 ~ 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21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14년 1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천마중앙교회(김형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녀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4월

3일 갈빈대학교·대학원 재를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강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만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월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종교회(최성온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27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5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18일 ~ 2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30일 LA 평화교회(김은목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익준목사)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17일 양문교회(정영국목사)
21일 ~ 23일 (국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4일 오병이어교회(김형제목사)
25일 불레싱 센터교회(고영수목사)
28일 갈빈대학교, 대학원 재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리들 블레싱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연죽목음화 무용사연수원 강의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회(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랄룽(LALUNG)



랄룽 족은 아쌌(Assam)과 메가라야(Me-ghalaya)주에 살고 있다. 그들은 두 부류가 있다, 구름 지역에 사는 부족들과 평원에서 사는 부족으로 분류 한다. 지형과 생태학으로 두 부족은 현저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왔다. 랄룽 족은 보도(Bodo)족으로 알려진 종족에 속해 있다. 구름지역 거주자들은

보도와 랄룽 양쪽 언어를 구사 하는데 반해, 평원에서 거주하는 자들은 보도어만 말한다. 랄룽 족은 허다한 전설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의 씨족의 시작은 불확실하지만 그들의 조상들이 티벳(Tibet)으로부터 이주해 브라마프트라(Brahmaputra) 강 남쪽을 따라 아쌌(Assam) 언덕으로 들어온 후 다시 1600년대 다시 평원으로 이주했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 랄룽 족의 젊은이들은 좀더 교육을 받고 정부 공무원의 직업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빈곤 상태로 말미암아 쉽지 않다.

삶의 모습
랄룽 족은 구름 지대에 살고 화전식 농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평원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논벼를 재배하고 있다. 주 곡식은 쌀이다. 깨, 겨자, 생강, 고추 같은 발작품도 재배한다. 랄룽 족의 경제는 타 지역 주민들과 같이 토지 이양, 부채, 현대기술의 부재, 그리고 부적절한 신용과 불합리한 시장 경제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랄룽 족의 주식은 쌀이며, 부식으로 고기, 생선, 또는 계란이 따라온다. 새고기와 돼지고기는 진미로 여기고 누구나 사육한다. 막걸리를 빚어 일상 즐겨 마신다. 막걸리 소비는 평지에 사는 랄룽 족들 내에서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점점 줄어 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교적 행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날 랄룽의 지식인들은 술 대신 차를 더 권하고 있다. 평원에 사는 랄룽 촌락은 배타적 이 아닌 구역이다. 그래서 많은 비 랄룽촌들이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다. 대부분 랄룽 촌락은 잘 건설된 도로에 인접해 있다. 구름지역 랄룽족과 평원의 랄룽족 모두 가족들은 기둥위에 올려 세워진다. 지붕은 짚으로 올리고 벽은 갈대나 대나무로 만들고 모든 가족은 집 앞에 마당이 있다. 최근에 평원 지역에 어떤 주민들은 양철지붕 집을 지었다. 랄룽 족은 외혼제(exogamous) 씨족이다. 이 뜻은 같은 부족과의 근친결혼을 지양하고 타 부족과의 결혼만 허락하는 제도다. 구름지대 랄룽 족은 모계 부족이다. 씨족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집을 짓거나

추수할 때나, 예배 시에 서로 협조한다. 모든 씨족들은 각기 자신들의 씨족을 위한 신과 그 제단이 있는 예배 장소를 갖는다. 랄룽 사회에서 중요한 전통은 젊은이들이 예술과 공예 그리고 음악 지식의 연수를 위해 교육받는 일이다. 교육은 “사마디”(Samadi)라고 불리는 기숙사에서 행해진다. 사마디는 마을 위원회를 위해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불행히도 평원 지역의 거주자들에게 전통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랄룽의 여성들은 뜨개질의 선수들로 대개 가족들이 입을 의복들을 만든다. 오늘날 젊은 평원 거주자들은 아싸메스(Assamese) 족과 거의 같은 의복을 입는다. 그러나 구름지대 거주자들과 평원의 노인들은 아직도 전통의상을 입고 있는데, 전통의상은 셔츠에 긴 렐티

(lengti, 옷으로 전신을 찰다)를 두른다. 노인 남자 어른들은 터번을 쓴다. 신앙 랄룽족들은 여러 형태의 마귀 숭배를 하고 있다. 그들의 최고신은 “프하”(pha 아버지란 뜻)이다. 그들의 공식적인 분류는 탄트라야나(Tantrayana) 불교신자라고 하지만 힌두교의 영향도 받아왔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인도 랄룽 족에는 66명의 기독교 신자가 보고 돼있다. 랄룽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과 기타 기독교 문서 번역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수고하는 선교기관에 보다 많은 일꾼들을 증원해 복음화를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공화당 당면 문제는 ‘늙어가는 지지자들’

미국 공화당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점점 나이를 들어가는 지지자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17일 ‘공화당이 죽어가고 있다. 문자 그대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공화당의 별칭(Grand Old Party)처럼 지지자들의 노화는 공화당이 처한 가장 큰 문제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정당의 핵심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며 당장 내년 대선에서 전통적인 핵심 지지자 수십만 명이 투표장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출구조사 결과와 연령그룹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2012년 밋 롬니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6천 100만 명 중 약 275만 명이 2016년 대선 전 사망할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지지자는 약 6천 600만 명 중 약 230만 명이 죽는다. 대략 45만3천 명의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의 평균 연령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2012년 선거 이후 공화당 지지자들이 훨씬 더 많이 세상을 떠났지만, 처음 투표를 하는 젊은 층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약재라고 덧붙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윌리엄 프레이 선임 연구원은 공화당은 시골 지역의 노인과 백인에게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 그룹의 사망률은 유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1981~1997년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1946~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보다 많고 그들의 투표가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화당이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동성 결혼과 같은 사회적 문제와 거리를 둔다면 밀레니엄 세대에 과고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힝야족 ‘보트피플’ 외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등이 미얀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 국외 탈출한 로힝야족들의 수용을 잇따라 거부하면서 동남아 주변해역을 표류 중인 로힝야족이 최대 8천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가 당사국인 미얀마 정부를 겨냥,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자칫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AP통신 등은 800명 이상의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인이 탄 난민선 2척이 말레이시아 해안에 접근하려다가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고 14일 보도했다. 완 주나이니 말레이시아 내무부 차관은 말레이시아 북부 페낭 섬 부근 바다에서 로힝야족과 방글라데시인 500여명을 태운 난민선을 영해밖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완 주나이니 차관은 이들 난민에게 연료와 식량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힝야족 난민사태가 발생한 데는 특히 미얀마가 이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지 않은데 기인한 측면이 많으며 “그들(로힝야족)은 인간으로서 대접받아야지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고 미얀마에 로힝야족 탄압 중단을 사실상 요구했다. 말레이시아 북부 랑카위 섬 부근 해상에서도 밤새 로힝야족 300여명을 태운 채 접근을 시도하던 선박 1척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다.

당신 형이 IS 창조자’ 여대생 공격에 쫓겨 ‘진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동생이자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쥘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한 여대생의 당돌한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이 13일 전했다.



부시 전 주지사가 아이비 지드리히(19)라는 이름의 한 여대생으로부터 공격적인 질문 세례를 받은 것은 이날 오전 네바다주 리노에서 토론을 형식의 간담회를 막 끝내려 할 때였다. 네바다대 정치학 전공생이자 민주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학생은 부시 전 주지사를 향해 “주지사님, 질문 좀 받아주실래요?”라고 소리쳤다. 부시 전 주지사는 간담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정책 실패가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발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한 터였다. 지드리히는 부시 전 주지사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IS를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이라크 전쟁 후 이라크군 해산을 결정한 조지 W 부시 전 정권이 라고 반박했다. 지드리히는 “3만여명의 병사들이 해산되면서 직업도, 수입도 얻지 못했지만 무기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내버려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이 IS에 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드리히는 그러면서 “주지사님의 형이 IS를 만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당황한 부시 전 주지사가 “좋아요. 그게 질문인가요?”라고 묻자, 지드리히는 “저한테 그렇게 현학적(pedantic)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부시 전 주지사는 “현학치라고? 와우”라며 놀라워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NYT는 전했다. 둘 사이의 팽팽한 대화는 한동안 더 이어졌다. 지드리히는 “왜 중동에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은 것 때문에 IS가 생겨났다고 말하느냐”, “어째서 우리가 더 많은 전쟁에 끼어들어야 한다면서 민족주의적 수사를 남발하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부시 전 주지사는 이라크전쟁 이후 알카에다 축출 등 여러 상황을 설명한 뒤에 “학생이 원하는 대로 역사를 다시 쓸 순 있었지만 한 가지 사실은 미군 철수로 인해 훨씬 더 불안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의 ‘설전’을 전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준비하는 부시 전 주지사가 형이 남긴 유산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하는지 여전히 분투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가장 기본적인이고도 예측 가능한 이라크 전쟁 관련 질문에서조차 당황하고 더듬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참사 이기고 태어난 네팔 ‘기적의 아이’

만삭의 네팔 여성이 지진으로 무너진 집에서 빠져 나와 아기를 낳았다. 영국의 BBC방송은 ‘기적의 아기’(사진)라고 불렀다. 14일 BBC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규모 7.8의 지진이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를 덮쳤을 때 만삭의 돌마 타랑(28)은 붕괴된 집 잔해 더미 아래에 깔렸다. 타랑은 충격과 부상이 심했지만 오로지 ‘벅속의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왔다. 타랑은 “숨쉬기도 쉽지 않았지만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내 몸 다친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고 적십자사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곧바로 진동이 시작됐다. 주변은 운동 무너진 건물뿐이었고, 다친 몸으로 어디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가장 가까운 신두팔 초크의 병원은 걸어서 3시간 거리였다. 절망스러웠다. 산모와 아기를 살린 건 우연히도 현장을 지나가던 일본 의료진이었다. 의료진은 급히 타랑을 차에 태워 신두팔초크로 후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타랑은 무사히 건강한 아기를 낳았다. 타랑은 “이 아기는 우리 가족 모두의 희망과 새로운 삶의 상징”이라며 “비록(지진으로) 가진 것을 대부분 잃고 임시보호소에서 지내는 신세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 없고, 이 작은 기적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IS 함락’ 라마디서 이라크 정예부대 함비 타고 도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안바르 주 라마디 점령을 선언한 당일인 17일 이라크군 정예부대가 이 도시에서 도망치는 동영상도 공개됐다. 3분38초 분량의 이 동영상엔 미군 군용차 함비와 트럭, 장갑차, 일반 승합차 여러 대가 서둘러 라마디에서 빠져 나가는 장면이 담겼다. 미국 온라인매체 매클래치DC는 “이라크 정예부대

가 미군이 제공한 장갑차, 중화기, 군용장비 등과 병사 수백명을 IS의 수중에 남기고 라마디를 빠져나갔다”며 “작년 6월 모술 함락이 재현됐다”고 보도했다. 이라크군은 지난해 6월10일 IS가 이라크 제2도시 모술로 진격하자 변변히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를 모두 버리고 순식간에 도망쳐버렸다. 15일 라마디 스타디움 지역에서 빠져나와 인근 지역에서 재진입을 위해 전열을 정비하려던 이라크 프리미어 특수전단과 황금여단도 IS의 집중 공격에 철수했다. 안바루주의 한 이라크 장교는 이 매체에 “경찰과 군인 수백명이 라마디 지휘통제센터 안에 갇혔다”며 “IS는 중화기와 자살폭탄 공격으로 탈출로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알라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며 절망감을 나타냈다. 무한나드 하이무르 안바르주 대변인은 17일 AFP 통신에 “라마디가 무너졌다”며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고 군대가 도주 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 안바르데일리리는 IS가 라마디의 98%를 장악했다면서 주민 수 천명이 라마디 인근 칼리디야, 함바니아 등으로 걸어서 겨우 피란했지만 여건이 열악해 노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503명이 IS가 설치한 폭발물과 포격에 죽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힐러리 거액강연료 논란속 ‘게이 커플’ 집 방문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천문학적인 강연료 수입 등 논란에 휘말린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더욱 몸 낮춘 행보로 이를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달 대선 출마 이후 첫 행선지였던 아이오와 주를 18일 다시 찾았다. 메이슨 시티에 사는 한 게이 커플의 초청을 받아 이들의 집을 방문한 것. 집주인은 딘 겐스와 게리 스웬슨으로 이들은 2009년 아이오와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날 결혼한 최초의 부부이자 지역 운동가다. 미국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의 이날 방문을 “로키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클린턴 전 장관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영상에 게이 커플들을 출연시킨 데 이어, 자신을 ‘성소수자(LGBT)의 협력자’라고 규정한 바 있다. 또 연방대법원에 게이커플에게 헌법적 권리를 부여하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는 이날 겐스-스웬슨 커플의 집에 모인 지역주민 60여 명과 2시간 동안 대화하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특히 그는 미국의 양극화 현상을 거론하면서 “현실은 기업 최고경영자나 펀드매니저 등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다”며 “매칠 전 충격적인 통계를 들었다. 헤지펀드 매니저 톱 5명이 벌어들인 돈이 미국 내 모든 유치원 교사들이 번 돈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겐스-스웬슨 커플은 클린턴 전 장관이 3위에 그쳤던 2008년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클린턴 전 장관의 열렬한 지지자로 변했다. 스웬슨은 이날 페이스북에 클린턴 전 장관을 “유쾌한 사람”이라며 “전에도 그녀를 좋아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좋아한다”고 썼다. 또 “개인적으로 대화해보면 그녀가 박식하고 매력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턴 전 장관의 이러한 몸 낮춘 행보에도, 연일 그의 고액 강연료 수수 논란 등이 언론을 장식하면서 그가 중산층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부자들에게만 친해져 가는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클린턴 부부가 지난 16개월간 받은 강연료가 최소 3천만 달러(3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연방선거위에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100차례의 강연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받은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자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마지막 유료 강연 중 하나인 ‘이베이 서밋’에서 20분 동안 강연하고 31만5천 달러를 받아 1분당 1천750만 원씩 번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이후 61회의 강연으로 번 돈 가운데 27%가 IT 관련기업에서 나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담임목사 청빙

자 격 요 건: 1. 정규신학대학원 졸업(M.Div) 한 분으로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이중언어가 가능한 분. (영어 원고 설교 가능)
3. 영주권, 시민권을 소유한 분.
4. 4 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제 출 서 류: 1. 이력서 및 목회 비전,
2. 학력 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3. 최근 설교동영상이나 CD 2편.
4. 두(2) 분의 목회자 추천서
5. 최근 4 주일 치 교회주보

기 타 문 의: 1. 모든 청빙 서류는 e mail 로만 받습니다.
2. 1 차 서류에 통과하신 분에게만 개별통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청빙에 관한 문의는 e mail 로만 받습니다.
4. 2014년도 11월에 서류제출 하신 분들은 배제합니다.

제출 마감일: 2015 년 6 월 12 일

서류 제출처: OCPC 청빙 위원회.
7241 Pacific Ave. SE Lacey, WA 98503
E-mail : InvitationToOCPC@gmail.com

올림피아 중앙장로교회

*** 주일학교 유년부 전도사님과 예배 반주자도 청빙 합니다.

[편집자] 한국교회 부흥의 시초가 된 “기도”가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본지는 2014년 뉴욕목사회 신년금식 기도성회에 강사로 초청됐던 윤병이 목사(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의 저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저자의 제안을 받아 발췌 게재한다. 윤병이 목사는 이 저서가 자신의 간증이자 신앙고백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글을 통해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속시키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기도에 대해 바로 알아 이 시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

기도는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인생전부를 거는 모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1)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마6:7-9)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 “너희 사면

으시라”(민23:19)고 말씀 하셨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5:8). 그런데 무엇이

하시니라”고 하셨다.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아픔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필요로 한 것이 없어서요, 둘째로는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하셨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토스는 기도는 ·파산 당한 배의 항구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의 생명줄이요 ·병든 자의

전 인생을 거는 모험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기도는 필수 파산 당한 배의 항구요, 영혼이 하늘을 나는 날개...

힘이다. 그러므로 인생에는 성공한 인생도 있고, 실패한 인생도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은 일단 성공의 키를 잡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말하기 어렵다.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이 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서 성공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 사정을 다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너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실 줄 생각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본 받지 말

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레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겔 36:36-37).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신4:29, 대상28:9, 렘29:11-13, 요14:12-14, 약 5:12-18).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

아들보다 아까운 것이 있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기도하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 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눅 11:11-13)고 말씀했다. 또 누가복음 18:7-8을 살펴보면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팡이요 ·가난한 자의 보석 창고요 ·환난의 구름을 해치는 햇살이요 ·인간의 화를 정복하고 행복을 든든히 하는 기초석이요 ·불행의 길을 제거하고 행복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했다. 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는 ·기도는 영혼이 하늘을 나는 날개요 ·멀리게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요 ·우리의 연약한 힘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하는 위대한 방법이며 ·세상에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다. 그러므로 왕좌에 앉아 있어도 기도할 줄 모르는 자는 불행한 자요 극도의 궁핍에 처해 있어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라고 했다.

〈계속〉

〈4면에서 계속〉

오직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구원에 이르는 길만을 준행해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 자기 생각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인생을 최고로 의미있고 복되게 사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앞에서 자기에게 애굽 바로 앞에 나갈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자력자가 아니니 다른 이를 보내시라’며 거부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한 것이, 모세 자신을 위대한 구국역사의 대들보로 쓰임 받게 한 것입니다.

이후로 모세는 공포의 대상이요 상대하고 싶지 않은 무법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순종하는 것이 쉽고,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역설하는 것은 사실 모세의 인생 고백인 것입니다. 불평에 불신을 받먹듯 하는 백성을 인도하면서도,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고, 충성됨이 마치 주인에게 충성함과 같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시119:103), 하는 일은 마치 예수님이 지신 멍에처럼 가볍습니다(마11:30).

3.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1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를 40년간 행군하게 하신 목적을 8:3에서 밝혀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떡은 아주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사흘 굶어 이웃집 담 넘지 않는 양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 삶에 물질은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사람은 세상과 그 물질에 의해 좌우되기를 잘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세상과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함을 반복해서 연단시키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지켜 살아야 된다는 훈련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대로 1주일 6일 동안은 해 뜨기 전에 들로 나가야 만나를 거두어 올 수 있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말씀 따라야 했고, 또 이웃 모두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해질 무렵 메추라기 거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고 살려면, 길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이 크게 바뀝니다. 먹고 사는 물질 문제도 광야에서와는 달리 많은 기회와 선택이 있습니다. 자기 땅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가축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할 일도 다양해지고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에 무한한 기회, 곧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신들을 지도하고 감동하던 모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극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래서 그 말씀을 이제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 양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강제가 아니요, 의무가 아닌, 스스로의 마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회 많은 미국, 좀 더 자유가 있는 미국에 와서, 우리 마음 판에 새겨 주사 주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은 이야기 만드는(story making) 재주들이 범람합니다. 자기 위주로 말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내가 이러는 것 뭐 대수냐는 식입니다. 정말 어는 시대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믿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따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을 명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부디 말씀이 면에 있다. 너무 어렵다 하지 마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순전함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은 쉬워지고, 말씀이 힘이 되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부정과 비하, 멸절과 파괴, 비교와 열등의식에 빠져 부정적 자아상을 품고 신음하는 현대인들
그러나 여기 사랑과 은혜, 꿈과 확신으로 가득한 창조적 자아상으로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
그대는 절그릇 인생인가, 청자, 백자 같은 걸작품 인생인가
연습과 리허설이 없는 **한 번 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17면 / 13,000원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설교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명작!

책을 펼치는 순간,

그대에게 최고 인생의 길이 열린다.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소강석
지음



맨발의 소망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틴 루터 킹 페어이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 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스택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막에서 배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야 신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259면 / 11,000원



목회서신

기적 중의 기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고 성

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화목제물을 통하여, 범죄하므로 영원형벌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와 죄사하심, 그리고 구원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죄인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란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신구약 전체의 핵심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새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2:8-9)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복음, 기쁜 소식, Gospel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행과 공적 등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1-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공짜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돈으로 산해서 다 갚을 수 있었습니까? 목숨을 내놓는다고 한들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값이기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죄값을 갚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재림), 은혜와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고, 은혜 받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구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알아, 믿음으로 모두 구원 받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설령 하는 일

마다 뜻대로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여도, 잠시잠깐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을 후에 심판 받아 영원형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에,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하고, 못 살고, 못 생기고, 힘없고, 병 들고 아프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멸시, 무시,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아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거룩한 성도, 제자가 되었다면 죽을 후에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참으로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계 약70억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수억 달러의 수퍼로토 당첨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제19회 한부모축제 싱글패밀리 피크닉이 랄프 클러 리저널파크에서 열렸다

가정들이 위로받는 시간...

제19회 한부모 축제 싱글패밀리 피크닉

제19회 한부모 축제 싱글패밀리 피크닉이 16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랄프 클러 리저널파크(Ralph Clark Regional Park)에서 FMC, FBM, Mom's Home 공동주최로 열렸다.

한부모축제 시작부터 함께한 서니송 교수(탈북신학교)는 “지난

1995년에 싱글사역 시작돼 연례행사로 한부모 축제가 정착하게 됐다”며 “싱글패밀리 사역을 통해 장성한 모습을 보게 돼 뿌듯하다. 이 사역에 함께한 분들 중에는 어린아이 시절 만난 자들이 장성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된다. 이를 볼 때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무서워 하지만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육시켜주셨다는 생각이 들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금병달 목사는 “5월은 가족행사가 많다. 특별히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헤어짐을 겪은 가정들이 소외돼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시기다. 오늘처럼 5월에 싱글로 있는 부모 자녀를 위한 행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한부모 축제가 올해로 19번째 되는데 가정들이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부모 축제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민생활을 개척하는 한 부모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 바비큐 파티로 시작된 한부모 축제는 금병달 목사가 설교했으며 나승렬 목사의 사회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보물찾기,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한인1.5세와 2세로 구성된 크리스천밴드 원에이티의 쇼케이스를 겸한 콘서트가 MPARK4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콘서트가 함께 찬양하는 무대로...

크리스천밴드 원에이티 콘서트 대성황

크리스천밴드 원에이티 콘서트가 16일 오후 7시30분 타운내 MPARK4 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토요일 오후 공연장에는 20대 청년부터 6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연장을 찾았으며, 예정된 공연시작시간이 넘어도 밀려드는 청중들로 인해 공연이 30분 늦

어지기도 했다.

박형준(기타, 새생명비전교회), 에이미 김(싱어, 남가주사랑의교회), 박오달(키보드, 세계성경장로교회), 고아론(드럼, LA사랑의교회), 장우일(베이스, 올리브나무교회) 씨 등 5명으로 구성된 원에이티가 첫 앨범(Radical Love)을 발표하는 쇼케이스로 열린 이번 콘서트



제 1회 International Mission Leaders Charlotte Form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제 1회 국제선교지도자 살로포럼 개최

14, 15일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제 1회 International Mission Leaders Charlotte Form이 지난 14일과 15일 고든콘웰 신학교에서 열렸다.

킴넷(대표 최일식 목사) 주관으로 열린 첫날 개회예배는 전기현 박사의 사회로 고든콘웰 신학교 홀린저 총장의 환영사와 라니액 살로 분교장의 인사와 함께 조기흥 평택대학교 총장의 인사가 있었다. 조 총장은 평택대학교 전신인 피어선신학

교와 고든콘웰 신학교의 대를 이은 교제관계를 소개했다.

특강은 국제 선교지도자들인 강승삼 박사(한국세계대회 직전회장)와 SEED국제선교회 대표 이원상 박사, SIM대표 브리튼 존슨, 그리고 GP동아시아 책임자 백운영 박사가 맡았다.

포럼은 UBF 창시자 배사라 선교사, UBF 상임대표 아브라함김, 조지아크리스천대학교 총장 장영일

박사, 4/14운동의 김남수 박사(뉴욕 프라미스교회 담임)가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었다.

그 외에 각지에서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 지도자들의 패널토의는 1회 대회로서 손색없는 진행을 보였다.

14일 저녁 영성집회 사회를 맡은 나성균 목사는 말씀을 전한 Dr. Claude Alexander 감독에 대해 고든 콘웰 신학교 이사이며 성도 2만 명의 살로 지역 가장 큰 교회 담임으로 지역 영적 역사의 보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한국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일행을 접대했다.

동 교회 야외예배 장소를 방문한 극동방송국 어린이합창단을 위해 저녁을 대접하고 담임목사와 부목사 그리고 당회원들이 자택에서 민박을 제공했다. 40명의 합창단과 단장 및 지휘자, 학부도 등 50여명의 일행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미 친선 사절단으로의 사명을 다했다. 한편 지난 10일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감사 공연에는 미 참전용사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는 공연장에서 “여러분의 도움에 감사한다. 앞으로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참전용사 빌 레이드(Bill Reid) 전 대령은 “아이들의 찬양과 포옹을 잊을 수 없다. 우리를 기억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사), 그리고 24일(주) 오후 6시에는 연합교회(오경환 목사)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1시간 30분정도 진행될 음악회는 한국어와 영어로 두 명의 사회자가 곡에 대한 설명을 통해 1세와 2세, 한인과 다른 민족의 이웃들이 함께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며, 찬송가와 복음성이 위주로 연주되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뜻 깊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11면으로 계속〉



살로 한국전쟁참전 기념공원서 감사공연을 한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원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살로 한국전쟁참전 기념공원서 감사공연

포항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살로장로교회 홈스테이

살로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살로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감사 공연을 가진 포

뉴욕 이스트만 음대생들 LA서 음악회

7월 2-4일 LA 바이블 컨퍼런스 후원

오는 7월 2일(목)부터 4일(토)까지 오렌지에 위치한 채프먼대학교(Chapman University)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바이블 컨퍼런스(LABC)를 위해 뉴욕에 소재한 이스트만 음악학교 재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처음으로 LA를 방문한다. 학생들은 LABC의 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콘서트를 갖는다. 음악회를 통해 들어오는 모든 기금은 참가하는 청년들의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콘서트는 5월 22일(금) 저녁 8시에는 그린힐스 침례교회(정기정 목사), 23일(토) 저녁 7시 30분에는 로스앤젤레스 은누리교회(이정영 목

담임목사청빙

캔사스 시 지역에 위치한 캔사스 한인 연합장로교회(PCUSA)는 신실하고 성심있는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자격요건

1. 목사 안수후 목회경력2년이상 되신분
2.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 하신 분
3. 미국 장로교[Presbyterian Church(USA)] 교단에 속하거나 또는 가입 가능한 자격을 갖춘 분
4. 이중언어(영어,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1. 국, 영문 이력서(가족사진) 각1통
2. 신앙고백서 국, 영문 각 1통
3. 최근 설교 CD 또는 DVD(영어, 한국어) 각 1편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시민권 또는 영주권 또는 동등한 서류 사본 1부

• 모든 서류제출은 2015년 6월 30일로 마감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KUPCK. PNC
4849 England Street
Merriam, KS 66203

연락처

청빙 위원장 황경호 장로
913-220-7153 (jhhwang9011@yahoo.co.kr)
청빙 위원회 총무 청공수 장로
913-488-5455 (chung_kks@yahoo.com)



캔사스 한인연합장로교회

The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Kansas
4849 England Street Merriam, KS 66203

미국 4교단 한인목회자 연합친선체육대회 배구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또 유 목사는 “이를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소년병으로 백마고지 전투에 참
전했던 최 목사는 “하나님은 위험한
조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
자인 육신의 부모가 축복하면 자녀

△회장 최일홍 목사 △부회장 황
록 목사, 고창익 목사, 김재룡 목사
다민족분과 이성달 목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장로예배: 오전 2:00(월-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가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장로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연구: 오후 1:15 수요일장로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모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718)461-2811 45-64 162 St, Flushing, NY 11355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운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장로예배: 오후 1:30 수 요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21, Flushing, NY 11355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8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5 http://nyethesthane.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장로예배: 오전 1:30 화요일성경연구: 오전 10:00 수요일성경연구: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62-2571, Fax, (347)56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EM장로예배: 오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5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hcnjchur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장로예배: 오전 12:30 수요일성경연구: 오후 1:30 주일학교장로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장로예배: 오후 1:30 수 요 학 교 장로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 요 학 교 장로예배: 오후 8:30 www.gospelpl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9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실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장로예배: 오전 1:00 주일성경연구: 오후 1:00 주일성경연구(선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718)750-55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femcnyc.us/		에사랴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014		중은목자교회  담임목사: 김선영 주일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일장로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금-일): 오전 5:30 주일성경연구: 오후 4:00 OT강의: 오전 9:30(화) Tel, (516)584-4088, www.jounmocha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11746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장로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718)896-4040, Fax, (718)358-78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762-1150 Fax, (718)762-1151 89-2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바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금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장로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금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금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금요일장로예배: 오후 8:30 www.pccny.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총신대 ‘제3회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 지상중계

총신대학교(총장 길자연)가 전 세계 개혁주의 신학교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12일 경기도 용인 양지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서 ‘제3회 세계개혁교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 필리핀에서 온 개혁주의 신학교 전·현직 총장들은 자국 교회의 상황을 소개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영·중·네덜란드·필리핀 개혁주의 신학교 전·현직 총장들 “개혁 신앙 수호 첫발은 세계교회 연대”

헤르만 쉘더하위스(전 네덜란드 아펠도른신학교 총장) 국제칼빈회의 의장은 12일 칼뱅의 사례를 들며 전 세계 개혁교회들의 네트워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쉘더하위스 의장은 “칼뱅은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지에 신학대를 세우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강력한 복음을 전했다”면서 “칼뱅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신학 논쟁을 피하며 성경 중심으로 다른 종교 개혁자들의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결합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로 활발한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 대학 신학교 교회 도서관

들을 서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줄 메이덴블릭 미국 칼뱅신학교 총장은 “북미 지역 교회는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오면서 국내 선교(Home mission)와 해외선교(World mission)의 경계가 사라지며 하나의 사역(One mission)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칼뱅신학교도 어떻게 하면 이민자들과 그들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이밍 왕 중국 난징신학대학

원 부총장은 “중국교회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신학자와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 기독교인들이 칼뱅주의 전통을 선호한다는 것”이라며 “유교적 전통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중국의 교육에 깊이 작용하고 있는데 칼뱅주의를 통해 두 가지 사상이 이해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칼뱅 신학이 중세사회에서 근대 자

이이버 마틴 영국 에든버러 신학대학원 총장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19세기 수천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으며, 그중 다수는 선교지에서 순교할 정도로 왕성한 선교활동을 펼쳤다”면서 “그러나 교단분열과 세속주의,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의 거센 도전을 받고 지금은 8개 교단에 2100여개 교회, 43만5000여명의 성도로 줄

었다”고 실상을 소개했다.

로버트 스트라이브스 런던신대원 총장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면서 이단 신학과 비성경적 사고가 나타났다으며, 교단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20세기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전통에서 벗어나 신학적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고 밝혔다.

등록교인수가 7000여명인 반야월교회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대형교회다.

교회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1만6000㎡ 규모다. 본당과 소예배실 2개, 세미나실, 실내체육관, 카페, 식당 등이 있으며 지난 4월 입당예배를 드렸다.

한편 제100회 총회 목사부총회장 후보로 김선규(성남 성현교회) 김

종준(서울 꽃동산교회) 장대영(서울 수도중앙교회) 강태구(대구 일심교회) 목사가 소속 노회 추천을 받았다.

부서기 후보는 서현수 윤익세 이형만 고광석 목사가, 부회록서기는 해태삼 김정설 목사가 각각 소속 노회 추천을 받았다. 나머지 임원은 단독후보다.

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주요 교단들은 여호와 의 증인을 이단으로 판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8년 만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유죄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판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지난 3월까지 모두 9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기하성 양대교단 각각 제 64회 정기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양대 교단은 18일 제64차 정기총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리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당초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 기하성 서대문은 올해 총회를 교단 통합 총회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통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성사되지 않았다.

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이영훈 목사 “성령 새바람” 한기총·한교연 통합 지지…출산장려운동 적극 전개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총회대의원(총대) 6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현 총회장인 이영훈 목사를 차기 총회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총대들의 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 신임 총회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하성 교단이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어가야 할 때”라며 “작은 예수님의 영성”으로 무장해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분열과 갈등, 세속화와 이단문제 등 여러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하성이 다시 한 번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나라와 민족에 꿈과 희망을 전하자”고 말했다.

신임 부총회장단도 진용을 갖췄다. 제1·2·3부총회장에는 각각 이태근(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강영선(일산순복음영산교회), 윤종남(순복음금정교회) 목사가 추대됐다.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서대문 서안식 신임 총회장 “일하는 총회” 교단 위상 강화에 도약…한국교회 연합사역 참여

기하성 서대문은 18일 충북 제천 순복음총회신학교에서 총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임 임원 선거에서는 제1부총회장인 서안식(순복음충북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당선됐다. 총무 정동균(서울남부교회), 서기 이건재(순복음강변교회), 회계 유영희(명일순복음교회), 김서호(경기광주순복음교회)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출마 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한 제1·2부총회장과 관련,

총회는 향후 후보들의 출마 문호를 넓히기 위해 ‘부총회장은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는 문구로 총회헌법을 개정해 선거 절차를 다시 밝기로 했다.

서안식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일하는 총회를 만들어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면서 “총회 산하 각 위원회와 부서가 창조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총회장은 “찾아가는 총

뿐 아니라 교계도 연합해 범불자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단인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의 신문임을 뒷받침하는 각종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천지일보에 대해선 추가 조사 후 차기 회의에서 대응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호근 예방합동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장은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라는 증거가 다수 드러났다”면서 “천지일보가 신천지 기관지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법원 판결까지 있는 만큼 추가 조사 후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 축제’ 앞으로 2주 남아 찬반 양측간 전운 고조...16일 탈동성애 인권포럼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친(親)동성애 단체들의 ‘2015년 제16회 쿠퍼문화축제’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온다.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탈동성애 인권포럼’은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제1회 탈동성애 인권 회복의 날’ 선포식을 열었다. 친동성애 단체들이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2015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겸한 행사였다.

탈동성애 인권포럼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입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다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에 빠진 후 심각한 피해(평균 15~20년 수명 단축, 에이즈 등 각종 성병 감염, 변실금 등에 따른 정상적 사회생활 불가)를 경험하고는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탈동성애 지향자’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에서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탈동성애 지향자와 동성애로부터의 탈출을 포기한 채 낙심해 있는 동성애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생 동성애자로 살라고 억압하는 친동성애자와 국가 권력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제1회 탈동성애 인권회복의 날’ 선포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동성애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성애가 치유가능하고 벗어나야 하는 성중독임을 알리는 포럼과 세미나, 기자회견, 책자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역거리교회와 열방교회, 대전역주름에교회 등 전국 12개 소속인공동체도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동성애 추방’ 집회를 열었다. 서울 영등포역거리교회 이원용목사는 “집송도 하지 않는 동성애를 인간이 하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예수씨단과 동성애쿠퍼관관축제저지연대, 대한민국살리기1000만 범국민서명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광장에서 몇 개월째 이어오고 있는 ‘동성애 반대’ 예배를 드렸다.

전국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대 등 100여 교계·시민단체는 쿠퍼문화축제 당일 일종의 ‘맞불 작전’으로 서울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주요 교계 단체들의 쿠퍼축제 반대 광고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총은 13일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과거 신촌 등에서 열었던 동성애축제에서 일부 참여자가 누드 퍼레이드를 했던 점과 물리적 충돌 우려 등을 들어 이번 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최명우(순복음강남교회) 목사와 김인식(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도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총회장이 추가로 임명하는 2~3명의 부총회장과 감사, 부(副)임원들은 차기 실행위원회에서 선임된다. 현 총무인 엄진용(제일종은교회) 목사가 다시 총무로 선출된데 이어 서기 이일성(순복음삼마교회), 재무 박정준(순복음평택중앙교회) 목사, 회계 박경표(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가 추대됐다.

이날 총대들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법 및 유관 행사를 반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운동을 전개한다’ ‘통일기금마련을 위한 교회 예산 1% 적립운동을 제안한다’ 등 5개항을 결의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1부 예배에서 설교한 이영훈 총회장은 “오순절 성령의 강한 바람으로 흔탁해진 한국 교계를 정화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회 행정’으로 막힌 담을 열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쏟겠다”면서 “교단 위상을 강화하고 한국교회의 연합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1부 예배에서는 함동근 직전총회장이 ‘영성 회복’(느1:6-11)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총회와 재단법인을 위해’ ‘성령부흥운동을 위해’ ‘국가와 민족통일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날 총회에는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과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지강 대한기독교서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막1:38)

교회가 없는 500개 도시

스페인 선교지 답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남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 함께 살펴 보았던 15일은 기도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사 소감을 한 마디로 말씀 드린다면 교회가 하나도 없는 스페인의 5백개 도시에 교회개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스페인을 떠나오기 전 날 방문했던 스페인 전도협회의 브로셔에 인쇄된 주님의 말씀은 지난 수 년동안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의 답사목적은 스페인에 교회가 없는 도시들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전도협회에서는 교회가 없는 5백개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기도운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두 주간 스페인을 돌아보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뜻을 박듯이 떠나기 전 날 하나님의 뜻을 확인 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 서바나

바울이 그토록 가기 원했던 서바나... 21세기의 서바나 스페인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케톨릭의 참혹한 박해로 개신교가 발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세속주의로 한 번도 영적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복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의 다른 국가와 같이 값싼 노동력을 위해 북아프리카로부터 무슬림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므로써 이슬람화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 교회의 재부흥과 스페인을 중심으로 남유럽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을 수 있는 영적전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품안에 들어온 아프리카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

스페인 답사의 하이라이트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한 새벽산기도(?)였습니다. 스페인인과 무슬림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내려오는 산길에 피어난 들꽃들이 새벽여명에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거리는 25년 전 파송 받았던 아르헨티나에 돌아와 있는 듯 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희를 스페인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마지막 선교의 걸음이 되도록 기도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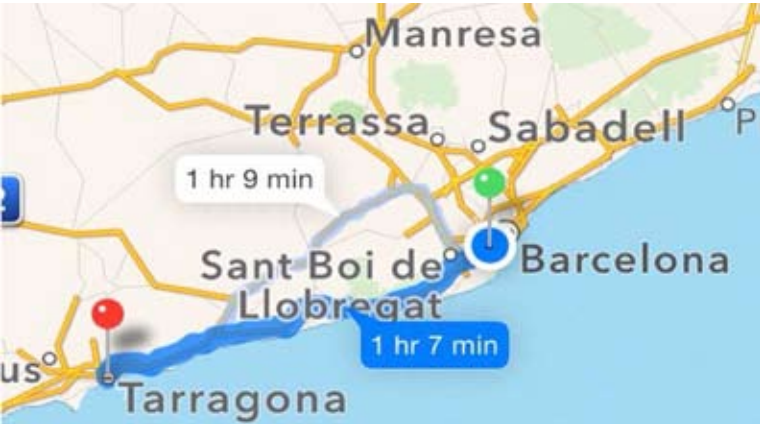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를 위해, 박신욱 유혜숙 드림

■ 기도제목

- 1. 스페인의 교회개척운동에 함

- 1. 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 2. 스페인의 한 도시를 위해 중보하며 교회개척에 동참할 교회들을 연결해 주시도록
- 3.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 4. 미주복음방음이 든든히 서가며, 하와이복음방송을 7백50만 디아스포라와 열방을 위한 선교방송으로 세워 주시도록

이메일:pastorjuan@gmail.com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바울이 선교했다는 ‘따라고나’고 하는 아름다운 해안도시가 있습니다. 2천년이 지난 오늘 복음의 향무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스페인의 도시들은 큰 지도가 아니면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 다. 이 도시들을 위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누가 갈 것 이냐? 이 질문에 대답할 일만 남았습니다.



스페인의 거리는 25년 전 파송 받았던 아르헨티나에 돌아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이제 스페인으로 부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마지막 선교의 걸음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 소식

네팔 한국선교사회 ‘어부회’ 어준경 회장이 전하는 실상

“200여명의 선교사들은 몸을 돌보지 않고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지인들을 위해 구호활동을 벌였습니다.”

네팔 한국선교사회 ‘어부회’ 어준경(45) 회장은 1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교사들의 긴급 구호활동은 종료됐다”며 “앞으로는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간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 회장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들은 네팔 대지진 이틀째인 지난달 27일 자발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10일까지 총 16만 달러의 현금을 지원받아 14개도, 108개 마을에 쌀 2만259포대, 전막 6012개(3000개 추가 배포 중), 담요 2284장, 라면 1034박스, 현금 51만 루피 등 긴급 구호품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선교사들은 또 다시 놀라야 했다. 이날 상당심리팀이 한국어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다.

어 회장은 “네팔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함께 기도하고 구호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현지 교회에 1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네팔은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전파가 왕성한 곳이다. 90년대까지 2%였던 기독교 인구는 2000년대에 4%까지 부흥했으며 지금은 5% 이상의 복음화를 보이고 있다는 게 선교사들의 전언이다. 네팔 교회도 이번 지진 구호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인 교회 ‘아사장로교회’를 맡고 있는 어 회

“강진·여진 계속, 여성선교사들 공황장애 호소”

지진 후 2-3일간 천막생활...지금은 사택 수리해 거주

전달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차를 이용하거나 트럭 등을 빌려 NGO가 닿지 못한 지역까지 찾아가 구호활동을 벌였다.

어 회장은 “여 선교사 중에는 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혈압 불안정, 공황장애를 호소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보내준 청심환까지 복용하면서 현지인 돕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선교사 대부분은 현재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진 직후 2-3일만 천막에서 지냈고 사택에 금이 가거나 파손된 경우는 수리했다. 여진은 지금도 계속돼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12일에도 에베레스트 인근에서

장은 “현지 기독교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다”며 “지진 후 첫 주를 보낸 지난 2일 예배에서는 교회에 왔다가 살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선교사회는 향후 구호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어 회장은 “곧 우기가 다가온다. 임시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며 “선교사들을 믿고 후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어 회장은 1999년 한국 네비게이토선교회의 파송을 받았고, 미국 CRC(Christian Reformed Church)교단과 협력하고 있다(facebook.com/nepal0425).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나는 제단이 아직 준비되어 있는 동안에 현주로서 부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합창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로마서, 2-3).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죽음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란 사실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뜻이 이뤄지도록 내버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그의 소중한 증언을 독자들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여러분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신의 선택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부적절한 친절’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수들에게 던져지도록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믿습니다. 나는 정결한 떡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짐승들의 이빨에 의해 물어 뜯겨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짐승들을 설득하여, 그 짐승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내 육신 어떤 부분도 남기지 않게 하여, 내가 잠들었을 때 누구에게도 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고, 이때 세상은 나의 육체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 이러한 도구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 나타나도록 탄원하십시오”(로마서, 4).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십

자가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지고 가는 자들이다.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용감한 자들이다.

“불, 십자가, 아수와의 싸움, 찌기, 자르기, 뼈를 비틀기, 팔 다리를 절단하기, 내 몸을 짓뭇갠, 악마의 사나운 매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해지도록 두십시오. 오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십시오”(로마서, 7).

2) 성경이 보인다 - 마태복음 16:21-28; 디모데후서 1:7-12, 4:1-8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신앙의 길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은 그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경고도 함께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시대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요구이다. 만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를 위한’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 ‘주님을 위한’ 성숙한 신앙은 자아를 죽이고 낮추는 아픔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또한 진정한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오직 ‘주님을 위한’ 신앙의 길을 선택한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이 길이 쉽다고 말할 수 있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금란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전 11:00, 7:00 주일7부예배: 오후 9:00 Tel. (031)877-3309-49, Fax. (031)877-8382 (주)410-8311(주)410-8312(주)410-8313(주)410-8314(주)410-8315(주)410-8316(주)410-8317(주)410-8318(주)410-8319(주)410-8320(주)410-8321(주)410-8322(주)410-8323(주)410-8324(주)410-8325(주)410-8326(주)410-8327(주)410-8328(주)410-8329(주)410-8330(주)410-8331(주)410-8332(주)410-8333(주)410-8334(주)410-8335(주)410-8336(주)410-8337(주)410-8338(주)410-8339(주)410-8340(주)410-8341(주)410-8342(주)410-8343(주)410-8344(주)410-8345(주)410-8346(주)410-8347(주)410-8348(주)410-8349(주)410-8350(주)410-8351(주)410-8352(주)410-8353(주)410-8354(주)410-8355(주)410-8356(주)410-8357(주)410-8358(주)410-8359(주)410-8360(주)410-8361(주)410-8362(주)410-8363(주)410-8364(주)410-8365(주)410-8366(주)410-8367(주)410-8368(주)410-8369(주)410-8370(주)410-8371(주)410-8372(주)410-8373(주)410-8374(주)410-8375(주)410-8376(주)410-8377(주)410-8378(주)410-8379(주)410-8380(주)410-8381(주)410-8382(주)410-8383(주)410-8384(주)410-8385(주)410-8386(주)410-8387(주)410-8388(주)410-8389(주)410-8390(주)410-8391(주)410-8392(주)410-8393(주)410-8394(주)410-8395(주)410-8396(주)410-8397(주)410-8398(주)410-8399(주)410-8400(주)410-8401(주)410-8402(주)410-8403(주)410-8404(주)410-8405(주)410-8406(주)410-8407(주)410-8408(주)410-8409(주)410-8410(주)410-8411(주)410-8412(주)410-8413(주)410-8414(주)410-8415(주)410-8416(주)410-8417(주)410-8418(주)410-8419(주)410-8420(주)410-8421(주)410-8422(주)410-8423(주)410-8424(주)410-8425(주)410-8426(주)410-8427(주)410-8428(주)410-8429(주)410-8430(주)410-8431(주)410-8432(주)410-8433(주)410-8434(주)410-8435(주)410-8436(주)410-8437(주)410-8438(주)410-8439(주)410-8440(주)410-8441(주)410-8442(주)410-8443(주)410-8444(주)410-8445(주)410-8446(주)410-8447(주)410-8448(주)410-8449(주)410-8450(주)410-8451(주)410-8452(주)410-8453(주)410-8454(주)410-8455(주)410-8456(주)410-8457(주)410-8458(주)410-8459(주)410-8460(주)410-8461(주)410-8462(주)410-8463(주)410-8464(주)410-8465(주)410-8466(주)410-8467(주)410-8468(주)410-8469(주)410-8470(주)410-8471(주)410-8472(주)410-8473(주)410-8474(주)410-8475(주)410-8476(주)410-8477(주)410-8478(주)410-8479(주)410-8480(주)410-8481(주)410-8482(주)410-8483(주)410-8484(주)410-8485(주)410-8486(주)410-8487(주)410-8488(주)410-8489(주)410-8490(주)410-8491(주)410-8492(주)410-8493(주)410-8494(주)410-8495(주)410-8496(주)410-8497(주)410-8498(주)410-8499(주)410-8500(주)410-8501(주)410-8502(주)410-8503(주)410-8504(주)410-8505(주)410-8506(주)410-8507(주)410-8508(주)410-8509(주)410-8510(주)410-8511(주)410-8512(주)410-8513(주)410-8514(주)410-8515(주)410-8516(주)410-8517(주)410-8518(주)410-8519(주)410-8520(주)410-8521(주)410-8522(주)410-8523(주)410-8524(주)410-8525(주)410-8526(주)410-8527(주)410-8528(주)410-8529(주)410-8530(주)410-8531(주)410-8532(주)410-8533(주)410-8534(주)410-8535(주)410-8536(주)410-8537(주)410-8538(주)410-8539(주)410-8540(주)410-8541(주)410-8542(주)410-8543(주)410-8544(주)410-8545(주)410-8546(주)410-8547(주)410-8548(주)410-8549(주)410-8550(주)410-8551(주)410-8552(주)410-8553(주)410-8554(주)410-8555(주)410-8556(주)410-8557(주)410-8558(주)410-8559(주)410-8560(주)410-8561(주)410-8562(주)410-8563(주)410-8564(주)410-8565(주)410-8566(주)410-8567(주)410-8568(주)410-8569(주)410-8570(주)410-8571(주)410-8572(주)410-8573(주)410-8574(주)410-8575(주)410-8576(주)410-8577(주)410-8578(주)410-8579(주)410-8580(주)410-8581(주)410-8582(주)410-8583(주)410-8584(주)410-8585(주)410-8586(주)410-8587(주)410-8588(주)410-8589(주)410-8590(주)410-8591(주)410-8592(주)410-8593(주)410-8594(주)410-8595(주)410-8596(주)410-8597(주)410-8598(주)410-8599(주)410-8600(주)410-8601(주)410-8602(주)410-8603(주)410-8604(주)410-8605(주)410-8606(주)410-8607(주)410-8608(주)410-8609(주)410-8610(주)410-8611(주)410-8612(주)410-8613(주)410-8614(주)410-8615(주)410-8616(주)410-8617(주)410-8618(주)410-8619(주)410-8620(주)410-8621(주)410-8622(주)410-8623(주)410-8624(주)410-8625(주)410-8626(주)410-8627(주)410-8628(주)410-8629(주)410-8630(주)410-8631(주)410-8632(주)410-8633(주)410-8634(주)410-8635(주)410-8636(주)410-8637(주)410-8638(주)410-8639(주)410-8640(주)410-8641(주)410-8642(주)410-8643(주)410-8644(주)410-8645(주)410-8646(주)410-8647(주)410-8648(주)410-8649(주)410-8650(주)410-8651(주)410-8652(주)410-8653(주)410-8654(주)410-8655(주)410-8656(주)410-8657(주)410-8658(주)410-8659(주)410-8660(주)410-8661(주)410-8662(주)410-8663(주)410-8664(주)410-8665(주)410-8666(주)410-8667(주)410-8668(주)410-8669(주)410-8670(주)410-8671(주)410-8672(주)410-8673(주)410-8674(주)410-8675(주)410-8676(주)410-8677(주)410-8678(주)410-8679(주)410-8680(주)410-8681(주)410-8682(주)410-8683(주)410-8684(주)410-8685(주)410-8686(주)410-8687(주)410-8688(주)410-8689(주)410-8690(주)410-8691(주)410-8692(주)410-8693(주)410-8694(주)410-8695(주)410-8696(주)410-8697(주)410-8698(주)410-8699(주)410-8700(주)410-8701(주)410-8702(주)410-8703(주)410-8704(주)410-8705(주)410-8706(주)410-8707(주)410-8708(주)410-8709(주)410-8710(주)410-8711(주)410-8712(주)410-8713(주)410-8714(주)410-8715(주)410-8716(주)410-8717(주)410-8718(주)410-8719(주)410-8720(주)410-8721(주)410-8722(주)410-8723(주)410-8724(주)410-8725(주)410-8726(주)410-8727(주)410-8728(주)410-8729(주)410-8730(주)410-8731(주)410-8732(주)410-8733(주)410-8734(주)410-8735(주)410-8736(주)410-8737(주)410-8738(주)410-8739(주)410-8740(주)410-8741(주)410-8742(주)410-8743(주)410-8744(주)410-8745(주)410-8746(주)410-8747(주)410-8748(주)410-8749(주)410-8750(주)410-8751(주)410-8752(주)410-8753(주)410-8754(주)410-8755(주)410-8756(주)410-8757(주)410-8758(주)410-8759(주)410-8760(주)410-8761(주)410-8762(주)410-8763(주)410-8764(주)410-8765(주)410-8766(주)410-8767(주)410-8768(주)410-8769(주)410-8770(주)410-8771(주)410-8772(주)410-8773(주)410-8774(주)410-8775(주)410-8776(주)410-8777(주)410-8778(주)410-8779(주)410-8780(주)410-8781(주)410-8782(주)410-8783(주)410-8784(주)410-8785(주)410-8786(주)410-8787(주)410-8788(주)410-8789(주)410-8790(주)410-8791(주)410-8792(주)410-8793(주)410-8794(주)410-8795(주)410-8796(주)410-8797(주)410-8798(주)410-8799(주)410-8800(주)410-8801(주)410-8802(주)410-8803(주)410-8804(주)410-8805(주)410-8806(주)410-8807(주)410-8808(주)410-8809(주)410-8810(주)410-8811(주)410-8812(주)410-8813(주)410-8814(주)410-8815(주)410-8816(주)410-8817(주)410-8818(주)410-8819(주)410-8820(주)410-8821(주)410-8822(주)410-8823(주)410-8824(주)410-8825(주)410-8826(주)410-8827(주)410-8828(주)410-8829(주)410-8830(주)410-8831(주)410-8832(주)410-8833(주)410-8834(주)410-8835(주)410-8836(주)410-8837(주)410-8838(주)410-8839(주)410-8840(주)410-8841(주)410-8842(주)410-8843(주)410-8844(주)410-8845(주)410-8846(주)410-8847(주)410-8848(주)410-8849(주)410-8850(주)410-8851(주)410-8852(주)410-8853(주)410-8854(주)410-8855(주)410-8856(주)410-8857(주)410-8858(주)410-8859(주)410-8860(주)410-8861(주)410-8862(주)410-8863(주)410-8864(주)410-8865(주)410-8866(주)410-8867(주)410-8868(주)410-8869(주)410-8870(주)410-8871(주)410-8872(주)410-8873(주)410-8874(주)410-8875(주)410-8876(주)410-8877(주)410-8878(주)410-8879(주)410-8880(주)410-8881(주)410-8882(주)410-8883(주)410-8884(주)410-8885(주)410-8886(주)410-8887(주)410-8888(주)410-8889(주)410-8890(주)410-8891(주)410-8892(주)410-8893(주)410-8894(주)410-8895(주)410-8896(주)410-8897(주)410-8898(주)410-8899(주)410-8900(주)410-8901(주)410-8902(주)410-8903(주)410-8904(주)410-8905(주)410-8906(주)410-8907(주)410-8908(주)410-8909(주)410-8910(주)410-8911(주)410-8912(주)410-8913(주)410-8914(주)410-8915(주)410-8916(주)410-8917(주)410-8918(주)410-8919(주)410-8920(주)410-8921(주)410-8922(주)410-8923(주)410-8924(주)410-8925(주)410-8926(주)410-8927(주)410-8928(주)410-8929(주)410-8930(주)410-8931(주)410-8932(주)410-8933(주)410-8934(주)410-8935(주)410-8936(주)410-8937(주)410-8938(주)410-8939(주)410-8940(주)410-8941(주)410-8942(주)410-8943(주)410-8944(주)410-8945(주)410-8946(주)410-8947(주)410-8948(주)410-8949(주)410-8950(주)410-8951(주)410-8952(주)410-8953(주)410-8954(주)410-8955(주)410-8956(주)410-8957(주)410-8958(주)410-8959(주)410-8960(주)410-8961(주)410-8962(주)410-8963(주)410-8964(주)410-8965(주)410-8966(주)410-8967(주)410-8968(주)410-8969(주)410-8970(주)410-8971(주)410-8972(주)410-8973(주)410-8974(주)410-8975(주)410-8976(주)410-8977(주)410-8978(주)410-8979(주)410-8980(주)410-8981(주)410-8982(주)410-8983(주)410-8984(주)410-8985(주)410-8986(주)410-8987(주)410-8988(주)410-8989(주)410-8990(주)410-8991(주)410-8992(주)410-8993(주)410-8994(주)410-8995(주)410-8996(주)410-8997(주)410-8998(주)410-8999(주)410-9000(주)410-9001(주)410-9002(주)410-9003(주)410-9004(주)410-9005(주)410-9006(주)410-9007(주)410-9008(주)410-9009(주)410-9010(주)410-9011(주)410-9012(주)410-9013(주)410-9014(주)410-9015(주)410-9016(주)410-9017(주)410-9018(주)410-9019(주)410-9020(주)410-9021(주)410-9022(주)410-9023(주)
--	---

선교 펴기

아르헨티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
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신지요?
이곳 아르헨티나는 이제 한여름의 더
위도 떠나가고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
갑니다. 떨어지는 낙엽들이 바람에 날
려 뒹구는 모습을 보노라면 참 세월이
빠름을 느껴봅니다. 저희들의 사역과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과 믿음
의 동역자님들의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인하여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1. CDP 어린이 개발 사역

어린이들을 4가지 영역(영적, 교육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사역하
고 있습니다. 매주 250여명의 어린이들
이 예배에 참석하며, 분반공부와 찬양
과 특별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서 정체성을 갖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
녀들로 성장하도록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여명의 교사와 자원 봉사자들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 250명의 어
린이들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사역
후원아동들의 교육성고를 위해 교사
가 가정을 방문하여 1대1, 또는 그룹별
로 학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
의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학기 초에 250명의 어린이들에게
학용품, 교복, 가방을 지원하고 후원 아
동들 중에서 성적우수자, 교회 출석과
모범 어린이들과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
들 35명을 선정하여 기아대책이 3000

불을 지원해주어서 장학증서와 함께 장
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을 받고
즐거워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감
사 인사가 있었습니다.

2. 아가페 목회자 지도자 사역

4. 2006년부터 시작된 아가페 목회자



라구나 제마 교회 세례식



무료 급식 활동

지도자 사역이 각 지역마다 좋은 평판
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헨티나
북부 지역의 현지인 및 인도오들의 영
적 지도자사역을 통해 현지인 리더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라구나 제마 지역과 폰타나

지역, 그리고 시엘로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폰타
나 지역에서 현지 교회 협의회 모임에
초청을 받아 저희들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몇 군데의
지역에서 자기들의 지역에서 사역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저
희들이 더 많은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차량, 및 재정이 충당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위치족 인도오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이 확장되
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위

치족 인도오 사역들이 점차적으로 성장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과 지도
자들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말
씀과 기도생활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
다. 그들을 대할 때마다 이들이 언제나
변할까, 이들이 언제나 제 몫을 할까 했
는데..... 이제는 제법 교회의 역할과 성
도의 역할을 부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
만 서서히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마
다 감사 할 뿐 입니다. 특히 감사한 것
은 이번에 라구나 제마 교회에서 10명
의 새 신자들에게 세례식을 행하였습니
다. 물론 장로 교식의 세례는 아니지만
이곳의 문화에 따라서 물속에서 세례를
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세례식을 통해 감격과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감사한
지요? 앞으로 이들로 인하여 전도와
선교의 역사, 그리고 지역의 많은 변화
를 가져오리라 생각 됩니다. 저희들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사역
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들도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열
심히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장영호 선교사 드림
이메일:

- 기도제목
1. 선교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
하여
 2. CDP 어린이 250명 사역을 통해 많
은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3. 교사와 스텝 30여명이 영적으로 강
건하도록
 4. 위치족 인도오 5개의 선교 교회들
을 위해서
 5. 사역에 필요한 승합차가 준비되도
록(12인승)
 6. 아가페 목회자, 지도자 사역을 위
해서

가정사역 칼럼

〈7면에서 계속〉

또 다른 가정에서는 이혼 후 엄마와 함께 사는
자녀들 가운데, 특히 큰 딸이 엄마에게 너무나 의
지가 되는 반면에, 엄마가 큰 딸에게 과도한 인생
의 짐을 지우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 엄마는 딸
을 마치 동생에게 대하듯 하였으므로 자녀의 입장
에서는 성장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신들
이 죄책감 내지는 수치감을 갖게 된다. 아울러 한
쪽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는 면에서 상실감이나 우
울증,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나 초조함 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가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 재결합하리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
지고 살게 된다. 심한 경우, 자기 나름대로 부모
의 재결합을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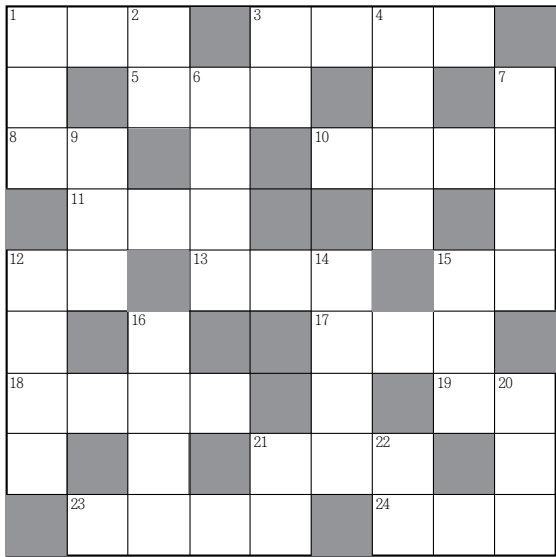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른들 입장
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못 심각한 후유
증을 가져올 수 있다. 많은 경우, 이혼가정의 자녀
들은 대개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폭력적인 행동
을 하거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성향이 있음), 내지
는 학업성적의 하락,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악
몽을 자주 꾸거나 대인 관계가 원만치 못하게 되
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혼 후 이전 가족(
부모를 포함하여 이복형제나 자매 등)에 대해 어
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항상 갈등이 있을 수 있
다. 자신들의 솔직한 감정들(외로움이나 거절감,
심한 경우 분노 등)을 나누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
들이 어릴수록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여 남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보다 자세한 것은 한
부모의 자녀양육에서 다루겠다).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
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혼자
는 상담자나 변호사를 찾기도 하는데 수없이 법정
을 드나들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의 아주 사적인
것까지 훤히 드러내야하는 경우도 많다. 아무튼
이혼하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하는데 드는 에너지와 시간 돈을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는데 들일 수 있기를 권하고 싶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8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목숨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계22:1).
3. 영원토록 끝이 없음(골16:27).
5. 물고기들의 숨쉬는 기관(욥41:1).
8.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포함(잠14:22).
10. 빌립보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빌4:3).
11. 빨래하는 사람(사7:3).
12. 느부갓네살 왕이 금 우상을 만들어 세운 바벨론도의 평원(단3:1).
13. 아야의 딸로 사울의 첩이 되어 알모니와 므비보셋을 낳았다(삼하3:7).
15. 쎈의 손자요 아람의 넷째 아들(창10:23).
17. 문쪽에 경접처럼...(잠26:14).
18.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박사. 바사 나라의 7왕백 중 하나(에1:14).
19. 바둑이나 장기의 수가 서로 비슷한 사람(출21:18).
21. 형겅 따위로 써서 묶다(시147:3).
23. 썰라의 아들이며 철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창4:22).
24. 어떤 장소에서 생산되는 온갖 물건(욥31:39).

<세로 푸는 열쇠>

1. 포도를 말리거나 즙을 짜지 않고 그냥 먹는 포도(민6:3).
2. 아셀지와 헤벨의 땅(대상7:32).
3. 아주 가늘고 작음(사29:5).
4. 예브라임의 수령(대하28:12).
6. 물건의 주위. 가에 가까운 부분(겔43:14).
7. 에스겔은 포로 된 애굽인이 이곳에 귀환할 것을 예언함(사11:11).
9. 아론이 죽어 이곳에 장사되었다(신10:6).
12. 동글게 이어만 종이(히10:7).
14.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본명은 나다나엘이다(마10:3).
15. 마귀에 속한(약3:15).
16. 사마리아에 식민한 앗수르왕(스4:10).
20. 구하여 써야 할 물건(스 6:9).
21. 서명. 서류에 많이 하지요.
22. 바울의 고향(행9:11).

십자말 정답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www.lapioneertour.com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품위있는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와 함께 하시면 순례가 은혜스럽습니다.

여행상품 · 일정

터키/요르단/이스라엘-12일 \$3699
* 출발일: 4월4일, 18일/5월 2일/9월 19일/10월 3일, 17일/10월 31일

터키/그리스/이태리-12일(13일) \$3499
* 출발일: 4월 5일, 11일, 25일/5월 3일, 9일/5월31일/7월 26일/9월 20일, 27일/10월 10일, 11일, 25일(13일)/11월 7일, 28일

터키/그리스 -10일 \$2799
* 출발일: 4월 5일, 19일/5월 3일/9월 20일/10월 4일, 18일/11월 1일

터키/이스라엘-10일 \$3199
* 출발일: 4월 12일, 26일/5월 10일/9월 11일, 25일/11월 8일, 29일

터키/뱃모/그리스-11일 \$3299
* 출발일: 4월 26일/5월 24일/6월 28일

터키/그리스/이스라엘-12일 \$3799
* 출발일: 4월 19일/5월 17일/6월 21일/7월 26일/9월 13일/10월11일

요르단/이스라엘-9일 \$3199
* 출발일: 4월 6일, 20일/5월 4일, 18일/6월 1일/9월 28일/10월12일, 26일

이태리/(요르단)/이스라엘-9/11일 \$4199
* 출발일: 4월 13일, 27일/5월 11일/7월 24일/9월 14일/10월 5일

체코/독일/스위스/프랑스-10일 \$3999
* 출발일: 4월 13일/6월 14일/9월 20일/10월 18일

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10일 \$3999
* 출발일: 5월 10일/8월 9일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비자피, 출입국세는 별도
※ 여행자 보험은 옵션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언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562)403-3363

**DYNAMICS** **다이나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부동산 교회 매매

Re/Max 부동산

- 건물 12500 ft²
- 땅 24500 ft²
- 가격 3백 5십만
- 한인타운LA

솔로몬 김

213-725-9900

2백만불 정도

교회도 찾습니다

매매에 정보를 주시는 분께 응당 사례합니다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5)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8)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까지 그 성경적 기초들 중에서도 먼저 구약에 나타난, 즉 신명기 6:4-9, 느헤미야 8장, 잠언 및 시가서, 그리고 산지서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부터는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기초들 중, 신약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 속에 현실화 되어온 언약의 자녀를 교육하는 다양한 양육의 원칙들을 배울 수 있었다면, 신약을 통해서 우리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개역개정, 마28:26-20).

소위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으로 잘 알려진 이 교육명령의 구절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그 할 일-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 세계 만민에게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분부하신 바를 일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실제적 가르침과, 심자가와 부활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삶을 통해 가르쳐주신 복음을 유대인과 그 땅의 경계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는 앞서 살핀 “1-3” 형태를 따라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교육은 “제자를 삼는 일(Discipleship; Making Disciples)”라는 큰 이해의 틀을 가져야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교육은 세례를 베푸는 일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교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심자가와 부활을 정점으로 한 그의 삶을 통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을 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교육은 머리로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고 실행하도록 가르쳐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이야기에서 먼저 첫

신약성경 중 예수님의 지상명령 “1-3” 형태 따라 행해져야

1- “제자삼기”로 지경 넓히고 체계적이고 책임적 사역으로

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사역 속에 나타난 교육의 원칙, 내용, 및 실제적 모본들과 이를 초대 교회 속에서 구체화한 신약지자들의 교육적 통찰들을 풍성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사역은 현대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여도 매우 탁월한 다양한 교육 방법들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의 목적과 근간을 설명하는 풍성한 진리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오늘날 한인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며 그 교육적 기초들을 다지고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약에 나타난 교육적 기초들 중에서 오늘과 다음 이야기들을 통해 먼저 마태복음 28:16-20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교육명령(Educational Commission)에 나타난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원어의 문법적 문장구조상으로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것은 결국 “1-3”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분부하신 바의 가장 큰 골자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1)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2)에 수납해서 제자들에게 그 삶과 가르침을 통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3)이를 지식적인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강령을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제자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러한 그리스의 교육명령을 실행 실천해야 하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반째 눈집인 “제자를 삼는 일”로서의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이야기들에서 나머지 기초들에 대해서 차례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할 때, 많은 신진 사역자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제자도(discipleship) 혹은 제자삼기(Making Disciples)일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심지어 신학교들에서도 기독교교육이라는 말을 영성형성(Spiritual Formation)과 제자삼기(Disciple-Making)이라는 단어들로 풀어 설명하는 경향이 있을 만큼, “제자삼기”라는 주제는 한편으로는 기독교교육을 관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교육을 떠받치는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정 신 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히10:19-24)찬200장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의 영원한 효력을 믿는 신자는 외형적 생활보다 먼저 양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거듭날 때 우리 양심이 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진실로 믿어 변화를 경험한 신자는 그 때부터 새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새 양심은 항상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피뿌림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는 이미 완성된 과거의 공로가 현실적으로 체현되어지는

것이지, 다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즉시 용서하시고 죄가 끊어지는 체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요일1:9). 이 자백을 회개라고 하는데 그 속에 죄에 대한 인정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것으로 적용하는 믿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미 목욕한 우리는 발 씻는 일을 할뿐입니다.

화 집짓 죄(히10:25)찬502장

그리스도의 삶에 고의적인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그 죄를 집짓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의도적 반복적 고의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주님은 성령체방조라 했고 요한은 사랑에 이르는 죄라고 했다. 이 죄를 범한 자의 결과는 심각한 형벌과 저주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백성은 이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 죄에 들어간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죄는 유대주의 이단적 교훈을 따른 자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순수성을 상실한 자 곧 교묘한 이단교훈을 따른 자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예수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수 선한 양심(히13:18)찬487장

신자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며 자라기 선한 열매가 풍만케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성령을 받음으로 약한 양심이 깨어나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선한 일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암시했습니다(히13:18). 구원받은 후의 구원의 삶을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의 활동임을 강조했고 그 자신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역했다고 말했습니다(행20:20). 둘째,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며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양심이란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학이란 뜻입니다. 단번에 구원받은 신자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선한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도록 돼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목 산제사의 삶(히13:1-17)찬181장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첫째,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1). 그 큰 사랑을 아는 신자는 그 흐름의 물고를 수평으로 흐르게 합니다. 그것은 형제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걷

는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흐름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야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제사는 누가 도울 수 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루신 독일무이한 제사입니다. 그것은 자기백성의 모든 삶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현재의 모든 죄를 처리하고 미래의 영원한 완성을 이루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금 참 믿음(약2:14-26)찬343장

본문은 참 믿음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니까? 첫째, 믿음은 나무뿌리라든 행함은 그 꽃과 열매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유기물의 움직이처럼 구분될 수 없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된 것입니다. 행함이란 수직에서 수평으로 퍼져나간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십계명

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행함인 윤리와 도덕은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마13장에 나온 씨뿌리는 비유의 네 종류의 믿음 즉, 일시적 믿음, 역사적 믿음, 기적적 믿음은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가짜 믿음입니다. 옥도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지켜 결실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롬12:1).

토 겸손(약4:15)찬349장

야고보의 깊은 경건을 통해 볼 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처세술은 한마디로 겸손의 도가 돼야합니다. 첫째, 이것은 주님이 가르치신 종의 도를 다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겸손과 전혀 다른 이유는 그 뿌리가 다른 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인간의 본성에, 후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섬기는 삶 곧 하나님의 성품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섬기는 도는 두 가지 특성

을 지닙니다. 하나는 인간의 무력함을 아는 일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 때 발판 없는 인생임을 배우고, 다른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밀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지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겸손의 마음에는 나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능하심이 공존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모든 복의 기본인 것은 이 때문입니다(마5:3). 겸손의 길을 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신약성경연구: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org Tel: (213)481-3779,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allstock@gmail.com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3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allst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 예배: 오전 6:00(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281-8202,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파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월요일 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찬송·KDC, 찬양·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중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30(월-토) 금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학교: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org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후 6:00(토) Tel: (213)388-7101, Fax: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Bre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영양예배: 오후 7:30 EM, 대가족: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man.org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창립주일) 오후 7:00(다독회) 새벽 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1:00 대형영양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새벽 기도회: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경연구: 오후 7:00 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7:00(다독회) 새벽 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연구: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1:45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www.gracemc.com Tel: (714)448-6200, Fax: (714)448-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종은마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7:30(토) 창고, 대, 청년부: 오후 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 (714)648-9289 Fax: (714)648-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0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전통)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창립) 창세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200, Fax: 310-370-2009 198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기도와 말씀묵상에 소홀했다!

thomrainer.com, 4개 교회 담임목회자 스스로 평가 고백하는 9가지 실수들 소개

라이너(Thom S. Rainer) 목사는 남침례교회의 대표적인 리더십으로, 현재 '라이프웨이' 대표까지 맡고 있는 중진 목회자다. 그는 5월 4일자 자신의 블로그(thomrainer.com)에 '목사로서 저지른 9가지 바보스런 일들(Nine Stupid Things I Did as a Pastor)'이란 짤막하지만 진솔한 자기 고백을 올렸다.

그러나 블로그에 글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56

만약 목회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쭙구니없을 정도로 바보 같은 잘못들을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계속 내 글을 읽어 주기를 바란다.

나는 '라이프웨이'로 오기 전까지 4개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다. 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좋은 교인들이 있었기에 나 같은 사람도 사역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베풀어 준 관심과 격려, 기도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솔직하게 목사로서 나



개의 댓글이 달릴 정도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에서부터, 어느 정도 목회의 내공이 쌓인 목회자들까지도 격한 공감과 함께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라이너 목사에게 감사하고 있다.

라이너 목사가 고백하는 9가지 실수들을 소개한다.

로 기도로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였는데, 가장 많이 하지 못한 형식만의 기도였다. 나는 정말 사역자들 제대로 이끌지 못한 리더였다.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했다.

목회자로서 아니 크리스천으로서 나의 유일한 관심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가 여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만 집착했다.

8. 나는 비합리적인 요구들이나 부탁들에 쉽게 타협했다.

목회자로서 사역에 정말 요구되는 일들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교인들의 눈치를 보며 사소한 부탁들에 시간을 많이 내었다. 그렇다고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다.

가족 등한시·위기 방치·비판자들 모두 적으로 생각 타 교회들과 경쟁·타인 인식·타협, 포기 많이 해

를 평가하자면, 나는 많은 점에서 미흡한 목회자다. 따라서 이제 목회전선에 도전하고 있거나 사역 중에 지친 목회자들을 위하여 내가 저지른 9가지 실수들을 감히 고백한다:

1. 나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너무 많이 소홀히 했다.

지금 이 고백을 쓰면서도 정말 목회자가 어떻게 가장 기분을 소홀할 수 있었냐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다. 정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 결과, 나는 나 자신의 부족한 열정과 힘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내었다.

2. 나는 가족들을 너무 등한시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

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딤후3:5)라고 이미 오래 전에 경고하셨다. 그러나 나는 너무 많이 내 행동들을 통해서 가족들이 내 교인들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3. 나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들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

교회에서 겪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위기 때마다, 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안목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4. 나는 나를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했다.

나에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건설적인 자극이나 생각을 주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너무 힘들기에, 목회자인 나에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비판들을 목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였다.

5. 나는 다른 교회들과 경쟁을 벌였다.

참으로 부끄럽다. 나는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항상 다른 교회들에 비해 많기만을 바랐다.

6. 나는 교회 부교역자들이나 스텝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소홀했다.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담임 목회자로서 최선이었다. 바

다만 더 중요한 일들에 그만큼 시간을 내지 못했다.

9. 나는 너무 많이 포기했다.

좌절과 지침 또는 너무 자주 신앙이 없어서, 나는 다가오는 도전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포기했다. 그저 주변에만 있었던 도전들을 직면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분명히 많은 승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라이프웨이'의 리더이자, 그레도 4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목회를 해 온 내가 과거의 실수들을 공개하는 것은 내 얼굴에 침을 뱉자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나처럼 실수들을 할 것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너무 늦어지기 전에 고치기만 하면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

고든대 최연소 이은혜 교수 연주 및 특강 투어 22일 나성제일교회 시작, 6월 3일 샌디에고연합장로교회

보스턴 고든대학교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이은혜 교수 연주 및 특강 투어가 미동부와 서부,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다.

이은혜 교수(26세)는 8월부터 보스턴에 소재한 고든대학교(Gordon College)의 음악부(Department of Music) 조교수(assistant professor)로 임명됐으며 고든대학교 교수로서의 해택을 통해 이번 9월 학기부터 고든콘웰 신학대학원(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이 교수는 웨스트LA의 해밀튼 고등학교와 UCLA를 졸업했고 콜번(Colburn School)에서도 음악교육을 받은 LA 출신의 음악가다. 연주 및 강의 투어는 평문 뉴욕 이스트만 음대의 음악박사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고든칼리지 교수로 임용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의미로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샌더스 극장에서 연주했고 1월에는 로드아일랜드 대학교(Rhode Island College)의 YMCF에서 연주하는 등 동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주와 강의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이은혜 교수의 미서부 투어 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과 24일 나성제일교회(담임 김광삼 목사)에서 대학진학에 관련된 한인청소년을 대상으로 비전특강과 연주 △28일 Hamilton Academy of Music에서 마스터 클래스 △30일 연주 △31일 올리브나무 교회에서 연주 △6월 3일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강용훈 목사)에서의 연주 및 비전 특강 등을 하게 된다.

▲문의: (213)281-1217
(정리: 박준호 기자)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면에서 계속)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태복음의 교육명령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독교교육을 생각할 때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언약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도 그러했습니다. 물론 이는 앞서 구약을 통해 나타난 교육적 기초들을 살필 때 다루었듯이,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변함없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크게 보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포함되는 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기독교교육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 바로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의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기독교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왔던 일을 그 앞, 뒤로 확장시키는 것이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미 교회 두리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내용을 전수하는 일 외에, 교회 두리안에 있지 않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과, 신앙의 내용을 전수받은 자녀들이 그 삶 속에서 그 내용을 실천하며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일까지 포함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물론 이는 비단 연령적으로 어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자삼기"의 사역들은 사실 교회의 전체 사역으로서 편만하게는 지속적으로 행해져온 것일 수 있지만, 이를 교육사역의 영역으로 받아 안고 체계적으로 실행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이라는 개념과 그 실천을 통해 교육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적인 제자삼기의 사역을 준행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육명령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교회교육의 기초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고, 다음 이야기에서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교육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Christian Education as Disciple making is the com-mission of church)과 제자 삼기의 체인(Chain of Disciple-Making) 및 한인교회를 향한 함의라는 주제들로, 제자삼기로서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한인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 제 1차 하계강좌

Pastoral Continuing Education Program



목적과 취지

46년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총장 Dr. Joseph LoMusio)에서는 이민교회 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현대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하여 신학적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건강한 이민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 1차 이민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시간
- 수업진행
- 수업과목

2015년 6월15일(월) 부터 6월26일(금)까지 2주간
(1) 제 1교시: 10:00am - 12:30pm (2) 제 2교시: 1:30pm - 4:00pm
총 5과목 수업 (각 과목 당 4회 수업)

- (1) 현대교회의 목회사역과 성경신학 (교수: 염광렬 박사)
 - (2) 비교종교학: "기독교를 위협하는 타종교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수: 김용준 박사/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교 교수 역)
 - (3) 이민교회의 목회 리더십(교수: 이광진 박사)
 - (4) 기독교 역사관의 종말론적 이해 (교수: 최희규 박사)
 - (5) 갈등사역: "교회분쟁과 갈등 해결 및 대처방법" (교수: 김용철 박사)
- * 특강: 정신질환의 이해와 예방 및 회복의 길

- 모집정원
- 등록마감
- 수업장소
- 수 강 료
- 강 사 진
- 특 전
- 등록 및 문의

20명
2015년 6월1일
본교 강의실
(1) 1주 수업료: \$250.00 (2) 2주 수업료: \$500.00 * 2주 수료했을 경우에만 본교 수료증 발급
본교 교수진과 외래교수
본 과정 이수자는 본교 D.Min. 과정에서 계속 공부할 경우 학점 취득에 반영됨
Tel.: (714) 636-1722 (714) 309-7551 e-mail: pastoryckim@yahoo.com
* 타주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숙소를 알선해드립니다.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11277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3 www.cgsot.edu